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골라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앞 다투어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모든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7)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5년 11월 7일 (토) 제 1558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크리스천 코미디언에게서 희망을 본다!

## CT, 과테말라 부정부패 총체적 난국 해결 대통령으로 지미 모랄레스 선택 보도

중남미 과테말라인들은 노련한 정치인 대신 코미디언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지난 25일CNN 방송 등에 따르면, 올해 46살인 코미디언 출신 정치인 지미 모랄레스가 과테말라 대통령 선거 개표에서 70% 가까이 표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됐다. 지미 모랄레스는 과테말라에서 20여 년간 코미디언으로 활동하며 부패 정치 풍자로 국민을 웃겼다. 특히 2007년 풍자 영화 '숨브레로(진동 모자)'를 쓴 대통령'에 출연해 대선후보로 나섰다가 헛된 공약으로 비난받아 도중하차한 카우보이를 연기했다. 선거 초반만 해도 그가 영화처럼 될 거란 의견이 팽배했다. 지난 4월 선거운동 초반만 해도 그의 지지율은 0.5% 정도로 당선 가능성이 희박했지만, 코미디언으로 활동하며 쌓은 인지도에 정권 고위층이 연루된 부패 사건이 크게 불거지면서 반사 이익을 얻었다.

AFP 등 외신은 '모랄레스가 정치 경력이 전혀 없다는 점이 오히려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유세 현장에서 "나는 20년 동안 사람들을 웃겨왔다"며,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을 울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과테말라 국민들이 그에게서 희망을 보는 이유는 바로 복음주의적 크리스천이기 때문이다. 전 인구의 40%정도가 복음주의자들인 과테말라에서, 현 대통령과 부대통령이 부정과 비자금 축적으로 탄핵되고 기소되는 등, 한마디로 정치권에 염증을 느낀 과테말라 국민들이 지미 모랄레스를 선택한 것이다 (Why Guatemala Elected an Evangelical Entertainer as Its New President: Voters hope Jimmy Morales will do better than the last two times they gave evangelicals the top job).



부정부패에 지친 과테말라 국민들은 비 정치인인 코미디언 모랄레스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과테말라 대통령 선거가 있기 한 달 전, 현 대통령이 탄핵을 받았고 부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부정부패로 체포됐고, 여기에 입법부 국회의원들과 사법부 판사들까지도 연루되어 한마디로 과테말라는 총체적 정치 난국에 빠져있다. 모랄레스는 "코미디언"으로 잘 알려진 연예인이다. 그러나 그를 코미디언으로만 부르기는 부족하다. 그는 배우이자, 제작자이고 사업가이기 때문이다. 그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행정에 관한 MBA이며, 안보와 보안에 대한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재원이기도 하다. 또한 그는 과테말라시립 침례교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그래서 그는 대학교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다. 그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은 4년 전 과테말라 수도에 인접한 메트로폴리탄을 이루는 중심 도시인 멕시코 시장선거 도전이었다. 아쉽게도 낙선한 그는, 작은 정당(the National Convergence Front, FCN)의 사무총장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이번 선거에 나서게 된 것이다. 그가 속한 FCN은 중도 성향으로, 과테말라 국민 통합과 아동 굶주림을 개선하기 위한 식량 안보, 교육 질 개선, 경제성장률 4% 달성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4월, 부대통령과 다수의 행정부 고

위 관료들이 건어 들인 관세 중 수 백만 달러를 횡령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부대통령은 사임했고, 체포됐는데, 여기에는 과테말라 사회복지국에서 운영하는 병원들을 담당하는 관리들이 모두 연루됐다. 그런데 문제는 투석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오염된 약을 복용해 사망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됐다. 여기에 SNS를 사용하는 젊은 대학생들과 국민들이 연일 항의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 현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주중 내내 열게 됐다. 동시에 수천 명의 크리스천들이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기도집회를 가져, 새벽 기도와 함께 시행하게 됐다. 그러다가 지난 9월, 현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 사임하고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다. 모든 부정부패의 뿌리가 밝혀진 것이다.

<3면으로 계속>

# 산아제한 한계 다다른 중국, 이제 2자녀 허용

## CT, 35년간 중국정부가 실시한 '한 자녀 정책' 시행착오 보도

중국 정부가 드디어 35년간 고수해온 '한 자녀 정책'을 지난 10월 29일 완전히 폐지하고 두 자녀를 갖도록 허용했다. 중국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해 '한 자녀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고 모든 가정에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해 자연적인 인구 증가를 통한 미래 중국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국무원 직속 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은 지난해 말 발표한 2015년도 중국 경제 예측보고서에서 "현재 중국의 출산율은 '저출산 함정'에 빠지기 일보 직전"이라며 "제한적인 두 자녀 정책을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으로 하루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중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4명에 불과하며 국제적인 저출산 기준인 1.3명에 근접해있는 것이 중국사회과학원의 분석이었다. 그러나 이번 중국 정부의 두자녀 정책 시행을 가장 반기는 그룹은 바로 중국 교회회이다. 지난 35년 동안 한 자녀만을, 그것도 아들만을 원하는 부모들의 거의 무차별적인 성별에 따른 낙태나 조기 유아 사망으로 여자 아이들이 희생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지금 심각한 성비 차이로, 결혼 적령기에 이른 남성들이 신부감을 찾기에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다(China Scraps One-Child Policy: But Communist Party's shift does not address the root problem, says watchdog group).

중국 정부는 10월 29일에 '한 자녀 정책'을 공식적으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제 자녀를 둘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던 한 자녀 정책은 20세기에 가장 논란이 됐던 정책 중 하나였다. 이 정책이 폐지된 지금,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3면으로 계속>



**ATS 인가 온라인 100% 목회학 석사 (M.Div) 과정**

성서학 학사 / 신학 석사  
목회학 석사 / 목회학 박사  
기독교상담학 학사 / 석사  
유아교육, 가정상담 수료증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2면**  
난민 위기로 유럽은 현재 우항!

 **7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8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윤병이 목사

 **16면**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교회  
엄예선 박사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6년도 목사 학력 및 고시 공고

##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 2016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 응시 자격 (Candidacy Qualification)

본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 하였거나 2016년 6월 이전에 졸업 예정 인자로 개혁신당의 신앙이 투철한 무흠 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 분.

#### 2. 고시 일자 및 장소 (Examination Date and Place)

1) 고시 일자: 2016년 5월 13(금) - 16(일)  
2) 고시 장소: Philadelphia, USA

#### 3. 고시 과목 (Examination Subjects)

- 필기고시: (1) 교회사 (2) 조직신학 (3) 미국장로교회사 (4) 헌법(이상4과목)
- 제출고시: (1) 구약주해 (2) 신약주해 (3) 논문 (4) 설교원고 (이상4편)  
제출고시 내용  
(1) 구약 주해 - 말라기 4:1-6  
(2) 신약 주해 - 고린도전서 2:1-5  
(3) 논문 제목 -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견해와 교회의 책임에 대하여 논하라.  
(4) 설교 본문 - 신약: 로마서 1:18-32  
① 설교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 할 것.  
② 필기고사 당일에 본인이 선택한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 설기교사를 치름.  
(5) 제출 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주해 및 논문은 아래지침에 따라 작성하며, 한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부는 PDF 파일로 서에게 이메일 할 것.  
① Letter Size(8-1/2 x 11) 용지를 사용 할 것.  
② 한글 11호 크기의 글자를 사용하며, 줄 간격은 180% 간격으로 (영문12호 Double Space) 작성할 것.  
③ 논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10pages 이내).  
④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 주를 사용 할 것.  
⑤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주제 이름을 파일 이름으로 사용 할 것.
- 면접 고시

#### 4. 응시 서류 (Accompanying Documents)

-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16년 6월 이전 졸업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증 1부.
- 신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
- 소속 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 명함판 사진 2장
-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 이력서(자세한 신력을 기재해야 함) 1부
- 고시료: \$150,00 (Pay to the order of - The New Life Presbyterian Church of NY)

#### 5. 서류 제출 요령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16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16년 3월31일 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합격자 발표는 40회 총회기간(5월17일-20일) 중에 합격증서 수여함.

#### 6. 참고 사항 (Miscellaneous Information)

- 본 총회 고시부 서기 허윤준 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월 13일-16일 총회고시장소)중에 사용할 속소를 예약 할 것.
- 시험 당일 Notebook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자를 것.  
2.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로 바꾸지 말 것. 허락 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 당함.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 할 것.

#### 7. 응시 서류 및 제출 과목 원고 제출처 (Submission Address)

고시부 서기: 허윤준 목사(Rev. Yun Joon Hur) / Email: jameshur63@hotmail.com  
NY Cell: (718)637-1470

#### 8. 기타 문의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고시부 부장: 김현인목사 (201)875-8212, hyuninkim@hotmail.com
- 고시부 서기: 허윤준목사 (718)637-1470, jameshur63@hotmail.com
- 고시부 회계: 김태업목사 (339)223-2763, daenaree@yahoo.com



# 난민 위기로 유럽은 현재 우향우!

## 허핑턴포스트, 유럽 정치판에 우파 발흥 보도

지난 25일에 있었던 폴란드 총선에서 EU에 회의적인 우파 법과정의당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가장 극우 성향이 강한 의회가 탄생했다. 폴란드에서 오랫동안 집권했던 중도파가 패배하고 보수적인 법과정의당이 다수를 차지해, 공산주의 몰락 이후 처음으로 우파 정권이 탄생했다.

폴란드의 우파는 극적으로 부상했다. 최근 유럽 전역에서 EU에 회의적이며 이민에 반대하는 정당들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따라서 허핑턴포스트는 몰려드는 난민들의 집단 이주로 인해 반 이민 정서와 함께 극우 성향 정당들의 선전으로, 국수주의 정서에 부합한 보수 우익 정당들의 득세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How The Refugee Crisis Is Fueling The Rise Of Europe's Right).

만, 외국인들에 대한 명백한 때로는 폭력적인 반발도 있었다. 몇몇 유럽 국가에서 열린 반이민 시위에서 충돌도 일어났고, 인종에 기반한 공격도 있었다. 난민 센터에 방화로 의심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폴란드에서 유럽 국가들에 보다 공정하게 난민들을 배당할 쿼터제에 반대하는 시위에 수천 명이 몰렸다.

유럽 국가 7개의 대중들을 상대로 한 2014년 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대부분이 자국에 들어오는 새 이민자의 수를 제한하기를 원했으며, 정치적으로 우파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특히 이런 태도가 강했다.

자국 유권자들을 겨냥하는 등의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이런 우파 포퓰리즘 정당들이 반EU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고 스케이인은 말한다. 이들은 EU가 위기를 완화할 능력은 없으면서도 난민을 더 받아들이



덴마크의 덴마크국민당은 6월 총선에서 득표율 2위를 차지했다. 국수주의 정서를 활용하고 덴마크 국민들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특히 시골 지역에서 큰 지지를 얻었다. 이 당 역시 반EU, 반이

## 지난 25일 폴란드총선, 공산주의 몰락 후 첫 우파정권 탄생 이민자 쿼터제 반대...반EU, 반이민 성향 당분간 지속될 듯

민 성향이다.

1980년대 말, 백인 우월주의 집단으로 처음 생겨난 스웨덴 극우민족당의 지지율은 설문 조사를 할 때마다 꾸준히 올라갔고, 8월의 한 조사에서는 심지어 스웨덴의 최고 인기 정당으로 꼽혔다. 오스트리아의 극우 당인 자유당은 지난 달 지역 선거에서 2위를 차지했고, 그리스의 네오 파시스트 황금새벽당은 올해 열린 두 번의 총선에서 3위에 올랐다.

이 정당들이 유사점은 많지만 우파 정치적 가치관과 정책의 극단적 성향은 각기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한다. 유럽의 반EU 우파 정당들 대부분은 황금새벽당 같은 조직과는 거리가 멀다. 황금새벽당의 고위직들은 범죄 조직을 운영하다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거의 전부는 민족주의와 국수주의 정서를 활용하고 반 이민 정책을 내세운다.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피데스당처럼 이미 정권을 잡은 곳도 있다.

유럽에서 반이민을 내세운 극우정당이 등장한 시기는 늦게 보아도 1980년대이니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유럽의 난민과 이민 위기 속에서, 그들의 수사는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덴마크국민당은 올해 반이민 정

서 속에서 인기가 높아진 극우당 중 하나다.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 지역 국가들에서 수십만 명이 유럽으로 피난하는 지금, 극우 반 이민 정당들은 이것이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유권자들의 공포에 호소한다.

지독한 예를 들자면, 폴란드 전 총리인 법과정의당의 야로슬라프 카친스키는 무슬림 난민들이 폴란드인들에게 기생충과 질병을 가져올 거라고 말했다.

스웨덴민주당의 35세 총수 지미 요케손은 작년에 "이슬람교는 우리 시대의 나치즘이자 공산주의"라고 말했다.

한편, 이민을 완강히 반대하는 헝가리의 오르반은 9월에 헝가리는 "우리나라에 많은 무슬림들을 원하지 않는다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에는 유럽에 들어오는 난민들이 "군대 같아 보인다"라고 했다.

"반이민 정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반이슬람적이고, 싼 값에 쉽게 써먹을 수 있다. 정말 우려된다." 유럽 정치전문가 뉴욕대학교 마틴 스케이인 교수의 말이다.

"이런 정당들이 정권을 잡지는 않았지만, 정책 결정에 있어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들은 정치를

공정히 오른쪽으로 끌고 갔다."

UN의 수치에 의하면 올해 지금까지 70만 명이 넘는 난민과 이주자가 지중해를 통해 유럽에 왔다고 한다. 이중 절반 이상이 내전으로 쫓겨온 시리아에서 왔다.

유럽 국가들은 망명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 수가 많아지는 것에 대처하기 위한 공통된 정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독일을 위시한 일부 국가들은 유럽에 공정하게 난민들을 배정할 수 있는 쿼터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당한 제도라며 완강하게 반대하는 국가들이 많다.

여러 유럽 시민들이 난민과 이민자들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

아 한다고 주장한다며, 무능하면서 군림하려 한다고 비난한다.

"EU가 난민들을 배당하는 명령을 내릴 것을 의논해왔기 때문에, (반EU 정당들은) EU를 더욱 세계 공격할 수 있다. 유럽 지도자들이 난민 이슈에 대해 말을 빙빙 돌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선거 캠페인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아주 많다." 스케이인의 말이다.

스케이인은 극우 정당들이 곧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오래 전부터 정치의 한 자리를 차지한 정당들도 많다고 말한다.

"지금은 그들의 전성기이고, 그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우리 알게 될 것이다."



### 시론

#### 사슴나무골에서(23):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박동서 목사 (엘크그로브 가스펠교회)

누구나 어렸을 적에는 꿈을 이야기 하곤 했습니다. 달나라에 최초로 우주선이 착륙했을 때는, 저도 우주인이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멋진 축구선수를 보면 저도 축구장을 누비는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되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대학과정을 지나면서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동경한 나머지, 대학교수가 되고 싶은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 잠시 방송통신대학과 한국외대에서 시간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험을 통해 보람을 느낀 적도 있습니다.

가정형편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직장생활을 해야 했던 젊은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방통대를 통해 정규대학에 전입해서 계속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단지 육신의 노화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우여곡절을 통해 지식과 지혜가 늘어가는 것입니다. 결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몸소 겪어내며 터득한 경험과 교훈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꿈이 점점 사라지거나 아예 꿈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자주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가부터 인생의 목표도 꿈도 어떤 계획이나 의욕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고 있으신 것 같은 모습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말하는 100세 시대가 점점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현실화되고 있는 세상에서, 나이 60-70세에 벌써 노인 행세를 한다면 앞으로 30-40년을 어떻게 지내게 될 지 짐작이 됩니다.

저도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65세가 되면 목회도 은퇴하고 가끔씩 선교 여행이나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손주들 재롱이나 보며 남은 인생을 살려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10여년을 섬기던 교회를 떠나 한 인교회가 하나도 없는 도시로 이사 와서 남은 생애를 아내의 건강을 돌보며 살다가 주님께 가면 되겠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한인들이 모여서 3년여 전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은퇴하고 살려고 했지만, 주님은 홀로 사시는 노인들을 위해 의료봉사사로 봉사도 하고 병원 재물인 훈련도 받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를 개척교회가 아닌 반석같은 교회로 세우려고, 남은 여생동안은 병원에서 고통 속에 이 세상을 하직하는 병자들에게 채플린 사역을 하면서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가는 꿈을 꾸며 살고 있습니다. 60이 넘어서 다시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당시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꿈이 현실이 된 것을 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 by Martin Luther King, Jr. (8/28/1963)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애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던 저 황폐한 미시시피 주가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의 네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주시사가 늘 연방 정부의 조처에 반대할 수 있다느니, 연방법의 실시를 거부한다느니 하는 말만 하는 앨라배마 주가 변하여,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자매처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 보는 꿈입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서리: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 la@chpress.net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http://www.midwest.edu)

###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 BA in Music 음악
  - BA in Theology 신학, 기독교교육
  -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 MA in Counseling 상담학석사
  -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 MA in Music 음악석사
  -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 M.Div 신학석사
- Doctoral Degree Programs**
  -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 Doctor of Music 음악박사
  -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교입니다.

미국 대학 학력인정기관 Accreditation (CHEA) [www.chea.org](http://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USED) OPE ID: O3528300,  
[www.ope.ed.gov/accreditation](http://www.ope.ed.gov/accredita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4751  
E-mail: wdc@midwest.edu



# 크리스천 코미디언에게서 희망을 본다!

(1면에서 계속)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는 아웃사이더인 모랄레스에게 가는 국민들의 기대는 높아지게 됐고, 드디어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이다.

나선 후보들 중, 모랄레스를 비롯한 크리스천들이 그레도 5위권에 2명이나 입성하는 지지도를 받게 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특히 모랄레스는 동성



결국 모랄레스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아닌 현실적인 부패 척결을 외쳐서다. 또한 과테말라 국민들이 부패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컸던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는 선거에서 "나는 부패하지 않았고 도둑도 아니다"라며 부패한 정권을 강하게 질타했다.  
노점상을 하는 아나 푸엔타스(36)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똑같은 얼굴에 지쳤다. 지미 모랄레스도 나에게 확신을 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모랄레스 뿐이다"라고 말했다.  
과테말라 사람들 중 35-40%는 복음주의적 크리스천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정치에 종교적 기독교가 주는 진정한 영향을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

결혼과 낙태를 반대하는 보수적인 정책으로, 과테말라 크리스천들에게 선명한 인상을 주었다.  
모랄레스의 당선을 신앙의 힘으로 풀이하는 크리스천 리더들이 많다. 특히 "기도" 즉 현재 정부대통령이 연루된 만성적인 총체적 부정부패를 폭력 그리고 헌법 체제가 붕괴될 것 같은 위기들을 극복해달라는 크리스천들의 염원이 이번 대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으로, 모랄레스는 2007년 코미디 영화에 출연해 대선에서 낙선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래서인지 선거운동 초기에는 주변에서 코미디 영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즉 영화에서처럼 낙선할 것으로 예상했다.  
모랄레스는 영화 '큰 모자를 쓴 대통령'에서 우연히 대통령이 될 뻔 한 카우보이 역할을 했다. 카우보이는 실현할 수 없는 공약을 남발하는 인물이다. 마치 과테말라 정치인들을 연상시켰다.  
그를 통해 과테말라 정치 현실을 바꿀까? 모랄레스의 선거운동 기간 국민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모랄레스는 "저는 20년 동안 사람들을 웃겨왔습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을 울게 하지 않겠습니다"며 국민을 기만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과테말라 국민들은 모랄레스를 선택했다. 그렇다고 해서 과테말라의 미래가 밝은 것만은 아니다. 정치전문가 필립 치콜라는 "모랄레스가 정치계 아웃사이더라는 점이 이점으로 작용했지만, 정치기반이 취약하고 상황에 따라 지지기반이 변할 수 있다"고 말해 앞으로 정권 초기 어떻게 민심을 잡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 여기에 과테말라 크리스천들이 하나가 돼 기도하고 있다.

비 불균형을 낳았다. 전문가들은 2020년에는 중국의 결혼 적령기 남성이 결혼 적령기 여성보다 3천만 명 더 많아질 거라고 예측한다. 전통적으로 남아를 선호했기 때문에, 자녀를 한두 명 밖에 둘 수 없는 가족들은 (불법) 선택적 낙태를 하거나 갓 태어난 여아를 버린 경우가 많았다. 당국은 미혼 남성들의 세대가 범죄와 사회 불안정을 낳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정책이 폐지된 지금, 중국은 베이비붐을 맞을까?

## 산아제한 한계 다다른 중국, 이제 2자녀 허용

무슨 일이 있었는가?  
중국 공산당은 모든 가족들에게 두 번째 자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과잉출산'에 대한 자제한 시기와 규정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한 자녀 정책은 조금씩 완화돼 왔다. 2013년에는 부부 중 한 명이 외동인 경우 두 번째 자녀를 허용해 한 자녀 정책을 조금 완화한 바 있다.



왜 지금인가?  
중국의 지도자와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막대한 문제들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산아제한은 바람직하지 못한 인구 구조를 낳았다. 점점 늘어나는 은퇴 후 인구를 부양하는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중국 경제는 한때 노동 연령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를 누렸지만, 이제 성장 속도 감소와 의료 및 은퇴 비용 증가라는 형태로 그 빛을 잃고 있다.  
연령 불균형 말고도, 이 정책은 엄청난 성

## 원로칼럼



박중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 목회자와 건강(3)

목회자의 건강, 교회와 목회건강의 중심축(나)

H목사님의 아들이 대학 재학 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내외 조문객들이 줄지어 빈소를 찾았다. 훗날 H목사님은 조문객들이 던지고 간 조문 인사말들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했다. "목사님,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로 받으세요", "하나님의 뜻이요" 거기까지는 A학점. 그 다음이 문제였다. "불효자식이네요. 부모보다 먼저 가다니요", "조심했어야 하는 건데요", "목사님, 낳지 않은 셈 치세요." 위로와 격려, 축하와 경축 언어 한마디를 제대로 구별 짓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필자는 관 위에 현화한 뒤 H목사님의 두 손을 잡은 채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아무 말없이 물러섰다. 훗날 H목사님은 필자의 조문과 위로가 가장 컸다고 했다.  
입원 중 다른 목사가 찾아왔다. 10여 분 히든 소리를 늘어놓더니 껌 한 통을 침상에 던지며 "박 목사, 죽지 마"라고 했다. 껌이 불로초나 영생고라도 된다는 말인가? 누구 씹으라고 껌을, 그것도 던진 것일까? 지금도 그 천박한 행위가 통째로 거슬린다. 언행은 때와 장소에 맞아야 한다. 제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때와 장소에 맞는 언행을 구사하지 못하면 목회도 힘들고 자아 확립도 어렵게 된다.

오늘도 많은 목회자들이 만성피로후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격무와 스트레스로 고통 받고 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여름이면 뒤도 돌아보지 않는 채 휴가를 떠나는 서구의 목회자들에게 비해 한국 목회자들은 바보스러울 정도다.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하느냐로 결정 난다. 일련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 목회자들이 앓고 있는 질병은 위장병, 심장병, 만성두통이라고 한다. 위장병은 불규칙한 식사 시간과 과식, 과음이 주원인이라고 한다. 일에 쫓기다 보면 일정한 식사 시간을 지키기가 어렵다. 배고프다고 과식하고, 대접하는 사람 기분 좋아라 과식하고, 가는 집마다 내놓는 다과류를 사양하지 못해 먹고 마시다 보면 위 기능이 약해지고 발병의 원인이 된다.

심장병의 경우 가슴 쏘고 놀라고 충격 받은 일이 얼마나 많은가? 바울도 심장이 약했다고 한다. 만성두통도 그 원인이 수도룩하다. 목회란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북한에 기쁨조가 있다지만 교회 안엔 근심조가 있다. 그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대면하고 해결하노라면 두통이 일기 마련이고, 반복하다 보면 만성두통이 된다. 기쁨의 목회, 행복한 목회는 불가능 한가? 근심명어리, 그들은 누구이며 어떤 사람들인가? 목회자는 건강해야 한다. 육체도, 정신도, 나아가 영도 건강해야 한다.

Y목사님이 과로로 쓰러졌다. 전 교인에게 기도문이 선포되고 목사님의 회복을 위한 기도회가 기관 별로 시작되었다. 6개월이 지나자 기도열기가 식고 기도소리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8개월이 지나자 "왜 회복이 안돼? 기도 응답이 없잖아?" 라는 여론이 번지기 시작했다. 1년 6개월이 지나자 "후일 고려해야 되잖아"라는 얘기가 사발뽕문이라고 돌린 듯 이임, 저임을 건너뛰기 시작했다.

질병과 전쟁을 치른 사람의 경우 가장 아프고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당사자다. 그리고 그다음은 가족이다. 함께 아프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한다. 돌이켜보면 필자의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다. 부족한 중을 버리지 않고 남겨 두신 하나님 아버지, 고치시고 사역을 맡기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하다. 그런가 하면 줄곧 곁에 머물며 아픔과 고통을 함께해 준 아내가 너무나 고맙다. 힘들고 짜증나는 일들을 뒤로하고 간병과 위로를 다한 그 사랑이 크고 고맙다. 그리고 기도도와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해 준 충신 성도들에게도 감사하다.

건강의 적은 바로 과육이다. 가시적 성과가 없으면 잠 못 이루는 사람들, 타인과의 목회경쟁에서 뒤졌다 싶으면 식욕이 떨어지는 사람들, 목회를 마치 자신이 일궈낸 사기업으로 여기고 애지중지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 모두 과육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언젠가는 '아파요'라며 주저앉게 될 것이다.

목회자에게 조급증은 금물이다. 공사 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건축은 하자 발생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목회도 그렇다. '천천히 확실하게' 그래야 건강성이 지속될 수 있다. 목회자의 육체가 병들면 활동이 제한받고, 정신이 병들면 중심이 흔들리고, 영혼이 병들면 모든 것이 붕괴된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가 성립하려면 목회자가 건강해야 한다. 오늘 한국 교회가 요동치는 것은 목회자의 건강에 이상 징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함께 건강을 회복하자!

#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 빛과 소금으로...



엄규서 목사  
(월서크리스천교회)

## 사랑합니다!

여행의 끝자락 로마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보존이 잘 되어있는 곳인 만큼 시대가 바뀐는지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과거에 찬란했던 그 문화유산 그대로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거대하고 웅장한 건축물들이 수주되었는지 감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베드로 성당 앞 광장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주 순방을 마치고 첫 번째 갖는 미사를 위해 준비된 의자들이 끝이 보이지 않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제 무덤위에 지어진 성당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정교한 조각들과 성화들은 살아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마음으로는 그 것들을 위해 힘겹게 노동을 해야 했던 서민들의 눈물과 땀 그리고 고통이 느껴져 가슴 한구석이 무거

웠습니다. 성당 건축 비용 마련을 위해 면죄부를 팔아 건축을 하였다는 역사는 아름답고 화려함 뒤에 감춰진 비화입니다. 16세기 들면서 로마 교황청에서는 왕권과 신교와 견제를 위해 또한 구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세기적인 프로젝트인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베드로 대성당은 율리우스가 1503년 교황의 자리에 오르면서 건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건축 자재는 팔로세움과 각처에서 수거하여 건축을 시작했지만 극심한 재정난으로 인해 면죄부를 팔기에 이르게 됩니다. 면죄부의 역사를 보면 11세기에

서 13세기에 걸쳐 십자군전쟁은 이슬람교를 따르는 아랍인들이 이스라엘을 장악하면서 발달되었습니다. 교황 우르반 2세는 기독교의 성지 탈환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11세기 말에 십자군운동을 일으켜 10대에 어린 십자군까지 참여케 한 긴 전쟁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군(十字軍)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십자군에 참여해서 전사하거나 살아서 돌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죄의 징벌을 면제해 주겠다고 선언한 것이 면죄부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다시 등장한 면죄부는 교황 율리우스 2세 때 '희년 면죄부(the jubilee indulgence)'라 하여 면죄부의 판매 대금의 일부는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 기금으로 사용되면서 루터의 종교개혁에 불씨를 당기게 됩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모든 죄가 사해져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데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95개 조항으로 비판하였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선포한지 500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개신교의 두드러진 활약으로 지금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는 문화, 경제, 역사가 변하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신교는 근대화의 문화 경제 성장으로 나쁜 삶을 살게 되는 축복도 누리게 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를 뽑으려면 당연히 '대한민국'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16세기 로마에서는 거대한 성당을 건축한 동 시대에 대륙 동쪽 끝 작은 조선에서는 분쟁과 외세의 침략으로 혼란을 겪었으니 말입니다. 그 작은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어지고 죽음과 핍박을 겪으며 이 땅에 복음이 심어졌습니다. 심어진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 세계로 뻗어가는 최고 선교의 나라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은 대성당을 가지고 있는 로마가 부럽지 않습니다. 척박한 땅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 주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개설하여 선교뿐 아니라 사회에 빛이 되는 모습들을 보면 가슴이 뿌듯합니다. 최근 한국 이호 목사님의 "대한민국 1호"라는 동영상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초대 대통령이신 이승만 박사의 건국사를 자세하게 풀어 설명한 영상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더욱더 기독교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주역들의 피

흘림과 고통이 민족을 향한 애정과 열망으로 온 몸이 떨렸습니다. 동 시대 많은 목회자를 역시 일제의 탄압과 핍박에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 고통 감수하였습니다. '구국 기도회'를 통해 끊임없는 나라 사랑을 실천하였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씨앗이 되어 축복받은 '대한민국'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소수의 목회자들로 인해 과거에 쌓아왔던 신뢰와 명예가 실추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목회자들이 지금도 오지에서, 선교지에서, 작은 교회를 섬김 것을 십자가의 사명으로 알고 맡겨주신 양떼들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사랑할 만한 거대한 베드로 성당과 같은 건물도, 명예도, 환호하는 군중들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그길 따라가는 목회자님들 '사랑합니다!'

# 푸 / 른 / 초 / 장

이남수 목사  
(하와이행복한교회)



눈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시면서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라고 눈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눈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육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눈앞에 있는 사물을 볼 수 있는, 겉으로 보이는 눈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지안'이라고 하는데 지식적인 안목을 말합니다. 지안이라고 하면 디자인을 볼 줄 아는 눈이나 예술작품을 잘 감상하는 눈을 말합니다. 보는 눈은 있으나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은 지안이 막혀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물건을 어린이들에게 주면 모두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육안은 있으나 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품속의 뼈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엑스레이나 눈에 보이지 않으나 저 멀리 비행기가 날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레이더는 지안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물건은 한 차원 높은 지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눈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입니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우리는 지안이라는 안목을 통해서 보듯이 육안과 지안을 통해서 볼 수 없는 영원한 세계와 여러분은 영적인 눈, 영안이 환히 밝아야 합니다. 적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 영적인 안목인 영안이 활짝 열려 있어야 합

니다. 육적인 눈은 매일 눈뜨면 사용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TV를 보고 시력이 나쁜 사람은 더 잘 보기 위해 안경을 사용합니다. 지적인 눈은 눈 뜰 때뿐만 아니라 눈 감아도 사용합니다. 눈을 감아도 '저 집은 이런 모델인데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난 이러이러한 모델을 만들어야겠다... 난 내가 내일을 할 일이 많다' 등 눈을 감고 잠자리에 누워도 환히 다 보이고 직접 사물을 안 봐도 지안이 있기에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지나간 일들이 필름처럼 머릿속에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지안이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육안과 지안은 쉴 새 없이 활동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5:8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에는 영안이 활짝 열렸던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아람 군대가 전쟁을 하는데 싸울 때 마다 아람 군대가

다. "선생님, 큰 일 났습니다. 어쩌다가 필름처럼 머릿속에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지안이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육안과 지안은 쉴 새 없이 활동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5:8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에는 영안이 활짝 열렸던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아람 군대가 전쟁을 하는데 싸울 때 마다 아람 군대가

다. "선생님, 큰 일 났습니다. 어쩌다가 필름처럼 머릿속에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지안이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육안과 지안은 쉴 새 없이 활동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5:8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에는 영안이 활짝 열렸던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아람 군대가 전쟁을 하는데 싸울 때 마다 아람 군대가

## 영적인 눈

(민수기 14:1-10)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자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6 봄학기 강의 안내

**March 7-11(3월 7 -11일)**  
**DI 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Daniel Lute

---

**Mar 14-18 (3월 14-18일)**  
**DI 8140 Cultural Anthropology in Biblical Perspective**  
(성경적 관점에서의 문화인류학)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9면으로 계속)





###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 미국 내에서 증가되고 있는 반기독교 사례들

지금은 기도할 때이며, 진정한 기도에는 늘 믿음의 행위가 따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의 땅,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며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진리의 깃발을 높이 올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안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증가되고 있는 반기독교 사상, 교육, 정치, 문화, 실제적 일상생활 사례들... 이대로 놔둬도 괜찮을까요?

#### 1. 오바마 정부와 언론들의 이중 잣대 정책들

조 케네디(Joe Kennedy)는 중동 걸프 전쟁 참전군인이며 워싱턴에

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깨닫게 된 것은 공립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미국 헌법적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코치는 그날 저녁 금요일 게임에서 기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조는 자신의 직업을 잃을 수 있는 것도 알고 있으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 저의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 신앙을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브레머튼 고등학교 미식 축구장도 포함해서입니다.”

어떻게 학교에서 이런 이중 잣대가 허락될 수 있을까요?

여러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미국 공립학교 중에서 오바마 대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천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했을 때와 완전히 다른 판결과 결과가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Star Transport는 일리노이 주 모튼에 있는 운송 회사입니다. 무슬림 직원들은 당연히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들어왔겠지요. 그런데 이들은 회사가 자신들 보고 맥주 운송을 시키는 것이 이슬람교 종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입니다. 회사는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었지만, 무슬림 직원들은 맥주운송을 계속 거부하여 결국 회사는 그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은 계속 있기 때문이며 무슬림들에게만 특혜를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슬림 직원들은 해고 당하자마자 U.S. Equal Employment

하라고 했습니다.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구분하라고 준 문장 중 하나는 '하나님은 있다(There is God)'였습니다.

12살 Jordan Wooley는 자신의 신앙에 따르면, 당연히 그 문장은 사실이라고 대답했지만, 선생은 틀렸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며, Jordan과 교사는 몇 번씩 같은 논쟁을 벌였고, 여러 학생들도 교사에게 ‘하나님은 진짜’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수업은 웃기게도 학생들과 교사의 논쟁의 자리가 돼버렸습니다.

Jordan은 말하기를 본인의 신앙이 성적보다 더 중요하므로 감점을 받아도 하나님은 있다고 답하였다 고 합니다. 그리고 곧 엄마 Chantel

## 신앙의 자유 내건 이중잣대로 무슬림 옹호 기독교 배척 가정/자녀/교회에 대한 공격...성경원리 뿌리 뽑는 행위

있는 브레머튼(Bremerton) 고등학교 미식 축구팀의 football 팀코치입니다. 그는 기독교 영화인 “Facing the Giants”를 보고 깊이 영감을 받으면서, 자신도 영화 속의 코치처럼 앞으로는 게임의 승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미식 축구장(Football field)을 걸으며 모든 선수의 안전과 자신의 팀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공정하고 씩씩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왔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많은 학생들이 코치와 함께 기도하며, 학생들 또한 그들의 삶에 변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ACLU라는 반기독교 단체가 강력히 지키고 있는 워싱턴 주지사, ACLU의 감시를 받았는지, 브레머튼 학교 역시 코치에게 경고장을 주었습니다. 경고내용은 “게임 전에 기도하지 말고, 게임 후에도 선수들에게 영적으로 동요하는 하나님께 영감 주는 말도 삼가고, 혹시 학생들이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코치는 절대 무릎을 꿇거나 고개를 숙여서 학생들 앞에서 함께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코치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군대생활을 20년씩이나 하면서 미국의 헌법과 시민의 자유

통령과 힐러리 클린턴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Common Core STD를 받아들인 주정부의 학교들은 이슬람 문화와 종교로 가르치면서 심지어는 알라에게 하는 기도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따라 하게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바마 정부 정책으로 인해 무슬림 학생들의 기도 의식은 거의 어디서든 문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반면, 크리스천들의 기도는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교회와 성도들이 몰라서도, 방관해서는 더더욱 안 되겠습니다.

#### 2. 무슬림들에게 종교자유를 vs 기독교인들에게 벌금?

2년전 무슬림 직원 2명이 자신의 이슬람 종교적 신념을 자신들이 다닌던 스타 트랜스포트(Star Transport) 운송 회사가 위반하게 했다고 미연방법원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10월 말에 미연방법원에서는 운송회사가 무슬림 직원의 신앙을 위배하게 했다는 것에 손을 들어주어, 그 운송회사로 하여금 무슬림직원들에게 24만 불씩 보상금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리 그동안 신앙을 지키려고 벌금까지 물고 있는 기독교단체들과 공동체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리스

Opportunity Commission(EEOC)이라는 단체에 회사를 고소하고 2년 후인 지난주, 미연방법원에서 운송 회사가 이슬람교 직원의 종교적 권리를 위반하였다고 직원에게 24만불 보상금을 주게 했습니다. EEOC가 주장하기를 “미국의 기본적인 원리는 종교적 자유와 관용”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 언제부터 헌법적 종교적 자유와 관용이 이슬람교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어떻게 이슬람교인의 종교적 신념이 위반되면 24만불 보상금을 받고 기독교인 케익집 주인이나, 꽃집 주인, 교회 목사님들의 종교적 권리를 포기 못하면 은 재산까지 다 팔아야 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게 되는 걸까요?

#### 3. 하나님은 없다고 가르치는 공립학교, 이에 대항한 용감한 12세 소녀

텍사스에 있는 Katy Independent School District의 선생이 7학년 반에서 학생들에게 여러 문장을 보여주며 “사실(fact)”인지 “일반적 주장(common assertion)”인지 또는 “의견(opinion)”인지 구분

Wooley에게 있었던 일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Jordan의 엄마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고 종교교장에게 물어보고 Jordan 12세 소녀는 학군위원회에 호소하려 했지만, 교감이 막아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용감한 Jordan과 엄마와 함께 한 기독교 엄마들의 항의로 결국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너무 지나침을 인정했지만, 교육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 위의 3가지 예들은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은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침묵하고 방관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정치”도 “남의 일”도 아닙니다.

이 일들은 바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최악의 공격이며, 우리 가정과 교회에 대한 공격이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천들과 교회들에게 굳게 지키라고 주신 성경 말씀의 원리원칙의 뿌리를 뽑고자 하는 반기독교 세력에 맞서는 일들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은 다 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tlspc0316@gmail.com

**Q:** 요즘 데살로니가후서를 읽고 있는데 예수님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고 말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이며 언제 오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LA의 한 신학생

**A:** 과거 ‘다미선교회’의 대표인 이장림 목사는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휴거가 온다고 떠들썩하게 광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국 다미선교회 173교회 8000명이 휴거를 기다렸지만 그날에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돈을 가로챈 사기죄로 1년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이런 주님오시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살후 2장에서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

택한 백성 차기까지 3차 대전 없어...적그리스도는 정치권 경제권 장악, 종교통합

타날 것을 예고하면서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당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이 세상을 지배한 후에야 일어날 일인데 그렇다면 언제 나타나는가? 적그리스도는 제3차 대전인 제9장의 유브라데강 전쟁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계11:7절). 제3차 대전은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고 유브라데강 전쟁입니다. 그리고 알 것은 제3차 대전이 일어나 인구 1/3이 죽는 전쟁이지만 그렇다고 이 세계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의 승자는 적그리스도로 등장하게 하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제3차 대전 같은 유브라데강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가? 첫째는 계7장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쟁의 바람을 일으키는 천사들에게 전쟁의 바람이 불지 못하게 억제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왜 아직은 전쟁의 바람이 불면 안되는가? 지금은 택한 백성의 수의 상징인 144,000의 수를 인지는 때이기에 그 수가 다 차기까지는 결코 제3차 대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 성경은 몇 가지로 말합니다. 1)짐승(계13:1)-교회를 짐승처럼 물어뜯고 핍박할 것입니다. 2)미운물건입니다(단9:27절).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금지하며 자기를 예배하게 강요합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자에게 적그리스도의 표를 주는 것입니다. 3)멸망의 가증한 것. 마24: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을 진저” 멸망의 가증한 것은 적그리스도와 그 가증하는 우상을 말합니다. 4)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니 될 것입니다. 5)자칭 하나님(살후2:4절)을 보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법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지존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과거 왕들이 황제숭배를 강요한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마치 하나님처럼 숭배를 받고자 할 것을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1)정치적 왕권을 장악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IS처럼 죽일 것입니다. 2)종교통합을 해 종교교권을 장악할 것입니다. 다원주의의 거짓된 목사나 종교인들이 허수아니 될 것입니다. 3)경제권을 장악할 것입니다(계13:7). 적그리스도 시대에는 적그리스도의 사상에 부합하는 사람들만 사업을 하고 생존할 수 있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와 타협하지 않는 자는 표를 받지 못하기에 핍박과 순교와 경제적 어려움을 당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 조성근목사 기도성회 일정

### 조성근 목사 방송실고 보기

홈페이지 <http://www.galmelsan.or.kr>  
유튜브 조성근 목사 새삼을 이기는 지혜-솔로몬  
GoodTV 기독교복음방송 : 멘토특강 희망드림  
- YouTube에서 '멘토특강 희망드림 60회' 차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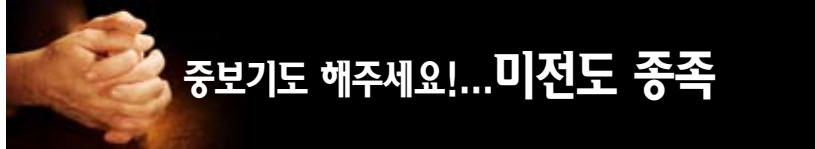
###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p><b>2015년 1월</b></p> <p>1월 ~ 10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감사예배 11월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기도성회 22일 ~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p> <p><b>2월</b></p> <p>2월 ~ 9일 LA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목사) 16일 ~ 22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p> <p><b>3월</b></p> <p>1월 ~ 3일 예수비전교회 (반창홍목사) 9일 ~ 11일 총신대학교 신명순교회 (한동태목사) 16일 ~ 23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3일 ~ 2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강화) 29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p> <p><b>4월</b></p> <p>6일 ~ 8일 용인 신세계교회 (문홍구목사) 13일 ~ 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0일 ~ 22일 아산 시민교회 (이성래목사) 23일 캠퍼스대학교 대학원 재물 26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27일 ~ 29일 화평교회 (이재욱목사)</p>	<p><b>5월</b></p> <p>1월 ~ 14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18일 ~ 17일 소망교회 (이정현목사) 24일 ~ 2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7일 ~ 27일 하늘미전교회 (오영택목사) 31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p> <p><b>6월</b></p> <p>1월 ~ 4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강화) 8일 ~ 1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15일 ~ 17일 온양감리교회 (노광원목사) 21일 ~ 21일 예우림교회 (류영희목사) 22일 ~ 24일 남수원교회 교사강습회 (한동태목사) 25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p> <p><b>7월</b></p> <p>6일 ~ 1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19일 ~ 19일 청운교회 (강대석목사) 20일 ~ 23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6일 ~ 26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27일 ~ 29일 천마산기도원 (홍경순목사)</p> <p><b>8월</b></p> <p>28일 ~ 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9일 ~ 12일 나사렛서경교단 연합성회 17일 ~ 20일 GST 신학생훈련 (35차) 30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p> <p><b>9월</b></p> <p>6일 ~ 8일 천운교회 (강대석목사) 14일 ~ 17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0일 ~ 20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21일 ~ 23일 동산교회 (박경순목사)</p> <p><b>10월</b></p> <p>4일 ~ 7일 성동중앙교회 (이인호목사)</p>	<p><b>11월</b></p> <p>11월 ~ 14일 임실교회 (김교문목사) 19일 ~ 22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2일 ~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p> <p><b>12월</b></p> <p>1월 ~ 7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8일 ~ 11일 신남성결교회 (이동연목사) 15일 ~ 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16일 ~ 27일 대림교회 (윤영미목사) 27일 ~ 29일 드림교회 (정조진목사) 29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30일 강서제일교회 (전종남목사)</p> <p><b>2014년 1월</b></p> <p>1월 ~ 19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감사예배 20일 ~ 22일 평화의동산 기도원 (피종진목사) 10일 ~ 12일 침파중앙교회 (김향우목사) 12일 ~ 13일 오산리 최자실기념 금식기도원 15일 ~ 15일 우리들교회 (김호경목사) 16일 ~ 25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26일 LA 베이커스빌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26일 신학생 철야기도회 (GST)</p> <p><b>2월</b></p> <p>3일 ~ 6일 GST 32nd 신학생 훈련 10일 ~ 13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17일 ~ 19일 용인 신세계교회 (문홍구목사)</p>	<p><b>3월</b></p> <p>1월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10일 ~ 13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17일 ~ 14일 천혜사교회 (사기영목사) 23일 ~ 29일 천학성 철야기도회 (GST)</p> <p><b>4월</b></p> <p>7일 ~ 3일 캠퍼스대학교 대학원 재물 14일 ~ 9일 캠퍼스대학교 대학원 재물 20일 ~ 17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4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p> <p><b>5월</b></p> <p>19일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26일 ~ 4일 시애틀 성회 (최민목사) 12일 ~ 15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16일 ~ 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미국) 26일 ~ 29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29일 하늘미전교회 (오영택목사)</p> <p><b>6월</b></p> <p>9일 ~ 11일 명주대학교 (김강덕목사) 9일 ~ 11일 천혜사교회 (최정영목사) 16일 ~ 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0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26일 ~ 29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p> <p><b>7월</b></p> <p>1월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14일 ~ 9일 LA 베이커스빌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18일 ~ 15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8일 ~ 27일 지화성 철야기도회 (GST) 31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강화)</p> <p><b>8월</b></p> <p>4일 ~ 7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안양)</p>	<p><b>9월</b></p> <p>11일 ~ 12일 평화의동산 기도원 (피종진목사) 18일 ~ 20일 GST 33rd 신학생훈련 21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24일 ~ 24일 남수원교회 (한동태목사) 31일 남수원교회 (한동태목사)</p> <p><b>10월</b></p> <p>15일 ~ 7일 평화의동산 기도원 (피종진목사) 13일 ~ 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19일 ~ 22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미국) 23일 ~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26일 LA 베이커스빌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p> <p><b>11월</b></p> <p>1월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28일 ~ 28일 LA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목사) 6일 ~ 6일 (마리놀라를 위한 성회) 13일 ~ 13일 영동교회 (김영호목사) 16일 ~ 19일 GoodTV '멘토특강 희망드림' 순회성회 (조영래목사) 20일 ~ 22일 마침교회 (홍기문목사) 24일 ~ 26일 미중문화원 부흥사순회 성회 27일 ~ 30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p> <p><b>12월</b></p> <p>8일 ~ 31일 영신교회 (이영목목사) 11일 ~ 11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안양) 14일 ~ 21일 GST 미전리서처 (한부민) 21일 ~ 21일 지화성 철야 순례여행 (GST) 31일 헬산금식기도원 송주영신예배</p>
---	--	--	--	---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네시아의 린탕(LINTANG)



대 파세마 (pasemah) 민족의 소그롭인 76,500명의 린탕족은 주로 수마트라 섬의 파세마 레바르(Pasemah Lebar) 고지대 평원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는 인근 섬에 살며 특히 동 수마트라(Sumatra)와 보르네오(Borneo) 해변 사이에 있는 섬에 살고 있다. 파세마 족은 아마 보르네오 해변에서 발원해 무역과 해상생활 습관으로 인해 수마트라 섬과 파세마 반도로 분산된 것 같다. 그들의 문화는 시아마인(Siames), 자바인(Javanes), 그리고 수마트라인(Sumatrans)들 같은 타민족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린탕족 공동체는 처음 부킬 바리산(Bukit

Barisan)산맥을 따라 확장했으며 정치적 중심지 "파카르 알람"(Pagar Alam 자연의 요새)은 공격적인 이웃나라 레장(Rejang)으로부터 파세마족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됐다. 오늘날 인도네시아 정부는 라햇(Lahat) 시를 이 지방의 수도로 지정했다. 린탕족의 공동체는 무래님(Muraenim) 시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삶의 모습

파세마족과 같이 린탕족은 전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다. 마을사람들은 대략 50-1000명 정도이며 나라의 대부분이 밀밭으로 덮여있다. 그러나 마을은 해변, 강 그리고 도로를 따라 위치한다. 린탕족의 거주지는 지상 4-8피트 높이에 대나무 말뚝 위에 가옥을 지어놓

았다. 린탕족의 80%는 농사일에 종사하고 있다. 고무 생산은 주 수입원이지만 커피와 벼도 재배한다. 논벼는 호미로 심고, 쟁기는 황소나 물소가 끈다. 린탕족의 주식은 밥이며 부식으로는 옥수수, 암감자, 고구마, 콩, 생선, 바나나, 땅콩, 카사바(cassava 열대식물), 그리고 두리안(durian 가시외피와 부드럽고 걸쭉한 속 열매). 닭과 염소가기는 명절 때만 먹는다. 이 지역은 건기가 없기 때문에 항상 풍부한 물이 있다. 그러나 강물과 우물물이 가끔 오염돼 끓이지 않고 식수로 마실 수는 없다.

린탕족은 보통 대가족이 함께 기거하지 않는다. 대신 각 가정마다 자신의 밭도 거실을 소유하고 신히부부는 임시 그들의 부모들과

함께 살지만 가능한 조속히 자신들의 살림집을 마련하기를 원한다. 여성들의 의상은 사롱(몸통을 감쌀 만큼 긴 옷으로 만든 치마)을 소매가 긴 면 브라우스와 함께 입고 옷웃과 스카프 그리고 바지위에 치마를 입기도 한다. 남성들은 서구식으로 면 셔츠와 바지를 입는다.

신앙

린탕족은 인도 힌두교 영향을 강하게 받아왔지만 오늘날은 거의 모두 수니파 무슬림이다. 각 마을마다 하나의 이슬람 사원이 있어 공식적인 종교 회관으로 쓰임 받고 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금요일 기도회에 참석하거나 적어도 몇 번은 참석한다. 전원지역에서 린

탕 족은 정령숭배도 실천 하고 있다. 토속적인 의술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샤만(shamans 의사)은 영혼육의 질병에 대한 상담을 받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린탕 족은 시골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매우 높다. 많은 남자들이 임시직과 정규직을 위해 직업을 찾아 대도시로 이동하고 있다.

현재 이들과 함께 하면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기관은 없으며 린탕족이 이해할 수 있는 기독교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이들의 귀한 영혼구원을 위해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도록 선교 자원과 선교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종교와 멀어지는 미국...유신론자 감소 추세

미국에서 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는다는 유신론자의 비율이 7년 전보다 8% 포인트나 줄었다.



연구·조사 전문 기관인 퓨리서치센터의 종교연구소가 3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신의 존재를 확신한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은 2014년 현재 63%로, 2007년의 71%보다 8%포인트나 감소했다. 또 자신의 삶이 종교와 연계됐다고 답한 이도 2007년 83%에서 지난해 77%로 6%포인트 낮아졌다.

퓨리서치센터는 지난해 6월4일부터 9월30일 사이 전국의 성인 3만5천71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로 종교 관련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1%포인트다.

유신론자와 무신론자는 지지 정당별로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이들 중 28%가 무신론자로 집계됐다. 이는 7년 전 19%에서 9%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어느 종교의 종파보다도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에 반해 공화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최대인 38%는 개신교 복음주의자였다. 공화당 지지자의 82%가 기독교도인 데 반해 민주당 지지자는 63%만이 기독교도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 결혼 합법 판결로 미국인의 인식이 변하면서 종교를 막론하고 동성애자를 더 받아들이려 한다는 여론은 높아졌다. 동성애자를 포용해야 한다고 답한 가톨릭 신자는 2007년 58%에서 2014년 70%로, 개신교 복음주의자도 같은 기간 26%에서 36%로 올라갔다.

이런 변화는 젊은 세대가 이끈 것으로, 특히 1980년대 초반 출생한 밀레니얼세대 중 복음주의자라고 밝힌 이들의 절반 이상이 사회가 동성애자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진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유신론자의 비율은 줄었지만, 종교를 믿는 이들의 신앙심은 더욱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삶이 종교와 연계됐다고 답한 이들의 %가 7년 전과 마찬가지로 신앙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고, 10명 중 6명은 한 달에 1-2회 미사나 예배 등 종교 행사에 참석한다고 말

했다. 매일 자신이 믿는 종교의 경전을 읽거나 소모임에서 타인과 신앙을 공유한다는 이들은 7년 전보다 많아졌다.

IS 이집트지부 "러시아 여객기 격추" 주장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 국가'(IS) 이집트 지부(시나 윌라야트)는 31일 이집트 시나이 반도 상공에서 추락한 러시아 여객기를 자신들이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 무장조직과 연계된 트위터 계정엔 이날 오후 "오늘 여객기 격추는 러시아가 무슬림과 IS에 보인 적의와 특히 시리아 알레포에서 저지른 학살의 대가를 치루게 되는 시작"이라며 "러시아 여객기의 '십자군'을 모두 죽였다"는 글을 올렸다.

이와 함께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갑자기 폭발하면서 검은 연기를 내며 추락하는 영상도 함께 게시됐다. 이 비행기가 이날 추락한 러시아 여객기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러시아 코갈림아비아 항공 소속 에어버스 A-321 여객기는 이날 오전 5시51분 이집트의 홍해변 휴양지 샤름엘셰이크를 이륙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던 중 시나이 반도 중북부에서 추락했다. 러시아인 221명과 우크라이나인 3명 등 탑승자 224명은 모두 사망했다.

이집트 당국은 "초기 조사 결과 기술적 결함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종교 탓 애고된 무슬림 '몬방식' ...배상 기업은 폐업

미국 법원이 종교적인 이유로 술(주류) 배달을 거부해 다니던 회사에서 애고된 무슬림 남성 2명에게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기업이 올해 초 폐업한 바람에 누구에게 배상금을 받아야 할지 알 수 없다고 미국 언론이 30일 전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미국 일리노이 주 중부지구 연방



지방법원의 제임스 새디드 판사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주류 배달을 거부한 무슬림 마하드 아바스 모하메드와 압디카림 하산 불세일을 애고한 스타 수송회사에 24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27일 판결했다.

두 무슬림 남성은 종교를 실천하는 데 어긋난다며 주류 수송을 거절했다가 2009년 애고당하고 나서 2013년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를 통해 소송을 걸었다. 두 무슬림 애고자를 대변한 EEOC는 소장에서 스타 수송회사가 합리적인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종교적인 이유로 두 사람을 '잘랐다'고 적었다.

회사가 인력 관리 직원을 대상으로 민권과 종교적 차별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책임을 묻는 것이다. 새디드 판사는 EEOC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회사는 올해 초 책임을 인정했다. 배심원단은 배상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26-27일 재판에서 두 사람의 피해액을 24만 달러로 확정했다.

그러나 지역 신문 피오리아 저널 스타는 재판이 벌어진 동안 스타 수송회사가 문을 닫았다면서 두 무슬림이 배상액을 손에 쥐게 될지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판결에 명확하게 누구의 책임이라고 규정되지 않은 탓이다.

伊 행정법원, 로마시 동성결혼 등록 취소 결정

이탈리아 행정법원은 로마시가 외국에서 결혼한 동성애자들의 결혼 사실을 등록해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고 이탈리아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이탈리아 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이그나치오 마리노 로마 시장이 외국에서 동성 결혼을 한 16쌍의 결혼사실을 등록해준 것에 대해 현행법상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할 수 없고 실형 외국에서 동성 결혼을 했더라도 일선 행정기관이 그 사실을 등록해주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탈리아 일간 라 푸블리카는 전했다.

마리노 시장의 동성결혼 등록을 강력하게 비난했던 안젤리노 알파노 법무장관은 이탈리아 행정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동성 결혼은 이탈리아 법률상 인정되지 않고 그런 사실을 등록해준 일부 시장들의 행위는 불법적인 것"이라며 "따라서 각 시의 상급 행정기관이 이런 결정을 무효로 했던 것은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동성애자 협회 등은 그러나 행정법원 판사들이 가톨릭 신자여서 편파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강력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담당했던 카를로 데오다토 판사는 "현행법을 적용했을 뿐"이라 말했다고 이탈리아 뉴스통신인 안사는 보도했다.

교황, 성추행 추문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시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창립자 등의 성추행 추문을 겪은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에 사면의 일종인 '전대사(全大赦)'를 내리기로 했다고 29일 바티칸 라디오가 보도했다. 바티칸 라디오는 "지속 같은 과거로 인한 거대한 추문을 거친 그리스도의 레지오가 평화와 부활의 시기에 들어섰다"며 이같이 전했다.



가톨릭교회에서 전대사란 죄를 저지른 신도가 고백성사를 통해 용서받은 뒤에도 그 죄에 따라 현재나 연옥에서 받아야 하는 '잠벌'(暫罰)을 일정 조건 아래 전부 없애주는 것을 뜻한다.

이번 전대사는 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속죄를 위해 치르는 대가인 '보속(補贖)'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레지오 단원들에게 내려진다. 바티칸 라디오는 "전대사는 자비의 행위에 충분한 시간과 육체적·정신적 노력을 기울인 이들에게 주어진다"며 "레지오 단원들은 또한 교리를 배우고 가르치거나 선교 임무에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달 시작되는 '자비의 회년'(Jubilee of Mercy)과 내년 예정된 교황의 첫 멕시코 방문 등을 앞두고 반포된 이번 전대사는 현 수도회 총장인 에두아르도 로블레스-질 신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내년에 창립 75주년을 맞는 그리스도의 레지오는 22여개국에서 활동하는 사제 800여명과 신학생 2천 500여명으로 구성된 수도회로, 최근 수년간 멕시코 출신인 창립자 마르시알 마시엘 신부 등 수도회 소속 사제들의 성추문으로 물의를 빚었다.

마시엘 신부는 1940-1950년대에 어린 신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여성과 관계해 자녀를 낳는 등 이중생활을 한 사실이 드러나 2005년 수도회 총장직에서 물러났으며 2008년 사망했다. 또 지난 8월에는 이 수도회 질레 분원을 이끌던 아일랜드 출신 존 오라일리 신부가 어린 소녀를 성추행해 질레 당국에 의해 추방되기도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외총회 제 77회 뉴욕노회 정기노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외총회 제 77회 뉴욕노회 정기노회가 10월 14일 오전 10시 30분 뉴저지 소재 주예수사랑교회(담임 강유남 목사)에서 열렸다

제 1부 개회 예배는 노회장 김종태 목사(중양장로복음교회 담임)의 사회로 진행됐다. 서기 이민철 목사가 기도, 노회장 김종태 목사가 마가복음 1장 14-20절 본문으로 "제자들을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고, 증경노회장 강유남 목사가 축도했다.

제2부 성찬식은 증경노회장 강유남 목사가 집례했으며 누가복음 22장 14-20절 본문으로 "구원섭리와 주의만찬"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고, 분병은 양경욱 목사, 분잔은 황인용 목사가 했으며 총신대학원 이사장 윤세웅 목사가 축도했다.

제3부 회무처리는 노회장 김종태 목사의 기도로 시작됐다. 서기 이민철 목사의 회원 호명, 김종태 노회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 노회장 김종태 목사가 지시위원 양경욱 목사, 흠서사찰위원 황인용 목사를 임명, 강도사 청원권을 가결했으며, 변병두 장로가 재정보고를 하는 등 회무처리했다

제4부 강도사 인허식은 노회장 김종태 목사 인도로, 증경노회장 정대영 목사 기도 후, 뉴욕총신대 총장 정익수 목사가 히브리서 11장 23-26을 본문으로 "지도자의 수칙"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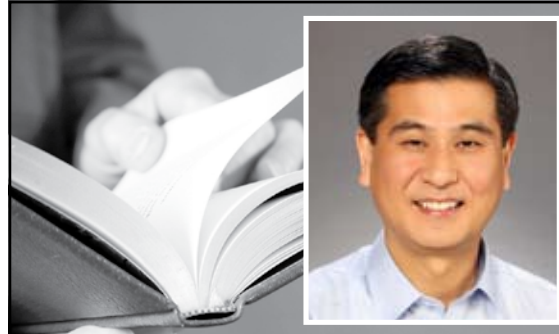
이어 노회장 김종태 목사가 강도사 4명(김동욱, 노광문, 김성민, 김진형)에게 서약하고 강도사 인허증 수여를 했으며, 공포 후에 증경노회장 정대영 목사가 권면, 증경노회장 이대길 목사가 축도했다.

한편 정익수 총장은 오는 12월 8일(화)에 개최될 "제4회 뉴욕총신의 밤" 행사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당부했다.



첫째줄 오른쪽에서부터 권영길 목사, 증경노회장 강유남 목사, 뉴욕총신대총장 정익수 목사, 총신대학원 이사장 윤세웅 목사, 노회장 김종태 목사, 증경노회장 이대길 목사, 증경노회장 정대영 목사





#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43)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 1. 초대 교회 - 고난의 끝, 방향의 시작 (5)

‘영적이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과연 영적이란 무엇일까? 신앙 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감동을 주는 음악에 이르기까지, 영적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무척 많다. 문제는 이렇다 할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느낌과 판단에 의거한 주관적인 생각을 상대에게

### 1) 교회역사를 보면...

#### ■ 신앙인으로서의 각성

밀라노 칙령이 선포되기 전, 초대교회의 역사는 곧 순교의 역사였다. 그들의 피는 교회에서 있는 터의 영적 거름이 되었다. 송고한 것은 성도의 죽음 자체가 아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

을 깨어있게 하였다. 신앙을 지닌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던 성도들은, 배교하거나 이름만의 성도로 남아있었다. 순교자들이 흘린 붉은 피는 그리스도에 대한 애정과 십자가 복음에 대한 확신의 증거였다. 그들의 순교는 강요된 것이 아니었다. 그리스도의 피를 온전히 드러내려는 자발적인 선택이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면서, 초대

늘어갔다. 특히 신앙적인 이유가 아닌 다른 동기에서 교회를 찾은 세속적 사람들의 영향력도 결정적인 한 몫을 했다.

신앙 자체가 매우 자유로운 모습으로 변질된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신앙인으로서의 각성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성도간의 관계가 중시되었던 교회의 모습이 변하여 제도적인 형태로 발전하였다. 자연히 성도 개인의 거룩한 삶까지 세밀하게 챙길 수 없었다. 교회가 신앙의 세속화

하여, 악한 생각과 욕망으로부터 자유하려는 성도들의 신앙적 태도를 의미한다. 이들은 금식과 회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일과 육체적으로 고통이 따르는 노동에 몰입하였다.

이들은 국가적 차원의 배려 속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의 신앙 상태에 대해 크게 실망하였다. 시대의 변화에 편승하여,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면서 더욱 순수해졌던 선배들의 신앙태도로부터 멀어지게 된 사실을 우려하게 되었다. 영적 암흑기가 찾아온 것을 우려한 그들은, 물려받은 순교 정신을 계승하기로 작정하고 들과 산을 찾아가 시작하였다. 고난이 없는 신앙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행동은 돌발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미 금욕주의 운동이

제도화된 신앙으로부터 탈출하여 순결한 신앙을 위하여 선택한 금욕생활은 두 가지 형태, 즉 개인적인 생활과 공동체 생활로 나타났다. 먼저 개인적인 생활을 살펴보자. 이들은 세례요한의 광야에서의 삶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입는 것이나 먹는 것 등 육체를 위한 노력을 과감히 포기하는 대신, 오로지 영적인 삶에 충실하려 하였다. 초기 수도사로서 성 안토니(St. Antony, 256-356)를 꼽을 수 있다. 초대 교부 아타나시우스의 ‘성 안토니의 생애’에 그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남겨져 있다. 안토니는 이집트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다. 어느 날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은 그는, 물려받은 많은 유산을 모두 나눠준 후 동굴에서 자면서 금욕의 신앙을 걸었다.

공동체 생활은, 개인적 생활을 강조한 수도승들의 태도에 대한 반동으로 시작되었다. 이 역시 이집트 사람 파코미우스(Pachomius, 290-346)에 의해 발전되었다. 여럿이 함께 모여 금욕주의적 신앙을 도모하다가,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규칙이 정해졌다. 개인이 지닌 신앙과 삶의 태도가 공동체 정신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지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것이 향후 4, 5세기에 보편화된 수도원 운동의 시작이다.

결국 새로운 형태로 등장한 신앙은, ‘영적인 신앙’을 강조하면서 시작된 ‘제도적인 교회’를 떠난 신앙이었다. 또는 ‘제도적인 교회’를 떠난 신앙은 ‘영적인 신앙’을 강조하며 독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 금욕생활 - 개인과 단체

(9면으로 계속)

## ‘영적’은 금욕주의와 구분...조직교회 통한 하나님의 뜻 거부는 애석 영적인 성도는 성령 충만 해야...그리스도 안에서 반복적 변화 체험

거침없이 적용한다는 것이다. 때로는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칭찬일 수 있고 격려가 될 수도 있지만, 간혹 ‘영적이지 않다!’라는 말을 함부로 함으로써 상대에 대한 흠잡기와 비난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매우 모순적인 일이다. 사실 남을 비판하는 태도 그 자체가, 그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영적이지 않은 행동이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질문: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 신앙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다는 것을 죽음으로 분명하게 드러내려는 그것, 즉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다. 초대교회에 속한 신실한 성도들이 지녔던 분위기는 양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계속되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쥘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했던 채 매일의 삶 속에서 당당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갔다.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순교가 현실이었던 시절의 성도들은 성령에 충만하였다. 어려운 환경이 그들

교회 성도들에게 더 이상 순교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졌다. 항상 순교 정신으로 무장하고 지내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전에 없었던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신앙의 성숙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로마 황제의 보호를 받으며 새로운 환경을 맞은 성도들의 신앙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순교도 불사하던 신앙이 오간데 없어졌다. 교회에 출석하고 기초적인 성도의 의무를 다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의 수가

를 막을 수 있는 힘을 잃은 것이다.

### ■ 붉은 순교에서 녹색 순교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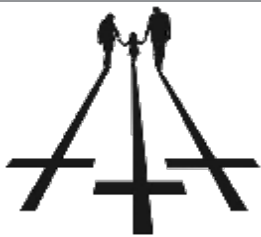
이때부터 새로운 형태의 순교가 시작되었다. 녹색 순교(Green martyrdom)이다. 녹색 순교는 붉은 피를 흘리며 순교한다는 붉은 색 순교(red martyrdom) 또는 모든 재물과 특권 등을 포기하는 흰색 순교(white martyrdom)와 구분된다. 녹색은 자연을 의미한다.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산과 들과 같은 외진 곳에서의 고난을 선택

오래전부터 초대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바울이 독신으로 살면서 복음전파에 사명을 다한 사실을 초대교회 교부들 가운데 심각하게 받아들인 자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키프리아노와 터툴리안은 거룩한 삶을 하려면 결혼을 포기하여야 한다고 독신생활을 강조하였다. 성적 유혹 자체를 죄악시 하였고 때때로, 육적인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들은 선하다고 믿는 이원론의 영향 때문이었다.

■ 금욕생활 - 개인과 단체

(9면으로 계속)

## 가정사역 칼럼



### 외로움

김정진 사모 (FBM 디렉터)



현대인들을 가장 괴롭히는 감정 중 하나가 외로움일 것이다. 그리고 한부모들은 더욱 외로움에 시달린다. 한부모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원인은 그동안 함께 살던 일부 가족 또는 친구들과 떨어진 것과, 지금의 시대가 부부중심의 문화세대를 살고 있다는 것, 가족이나 친구들의 지나친 관여 등등 이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상황에

있다. 또한 스스로가 무가치하다는 느낌과 거절감, 그리고 영적인 것들도 한부모들의 외로움을 더욱 증폭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외로움에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외로움에 대처하기

첫째, 홀로 서는 것을 배운다.

예수님도 홀로 계셨던 시간이 있었고(40일 금식기도, 새벽 미명의 기도 등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도 바울도 광야에 나가 3년 간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외로움의 시간에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도록 하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외로움의 학교에서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교훈들을 많이 배울 수 있다. 그리고 부정적 감정

곧 낙심이나 좌절이 몰려올 때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다(4영리중 제1원리).

둘째, 혼자 사는 동안 최대의 훈련을 받는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성경공부 프로그램, 가정사역 프로그램, 이혼 가정 회복모임, 자녀양육 모임, 내적치유, 개인 또는 집단 상담 등 개인적인 약점을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훈련의 기회를 갖는 것이다. 혼자 사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면 훨씬 더 준비되고 훈련됨으로 보다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건전한 가치관을 갖도록 자기훈련을 하고 영성을 개발하도록 노력하라.

셋째, 몸과 마음이 건강한 동성 친구와 적극적으로 연대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하지만 친구는 집에 가만히 머물러 있어도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겸손히 그들에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외로운 마음에 주변 사람들의 소개로 이성을 만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만나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성 친구를 사귀는 문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상처가 덜 치유된 상태에서(건강한 홀로서기가 되지

못한 상태)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면 그 상처가 새로운 관계의 기본으로 깔리게 되기에 두 사람의 관계를 악화시키기 쉽다.

넷째,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섬긴다. 자녀들을 돌보는 한부모라면 생계를 책임지고 또 자녀를 돌보는데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특히 여자들은 전문직이 아닌 이상 아이들과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두세 가지의 일을 하게 된다. 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할애하여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섬기는 것도 외로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시 말해 외로움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자기 훈련의 시간으로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메일: familykum@gmail.com

# PRINTING & PROMOTION

# 프린팅 & 프로모션

## 각종 인쇄물과 다양한 판촉물 교회 행사에 필수!!



판촉볼펜



주보/헌금봉투



교회책자



단체 T셔츠

전문

교회/매장/기타단체



책 만들어 드립니다.



각종 상패



타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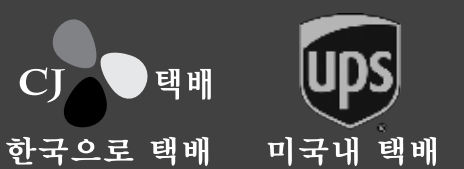
머그컵

# 전화: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BOOKS KOREANA 한국서적 BOOKS KOREANA, INC 월-토: 오전 9:30-오후 8:00

- ◆ 기독교서적
- ◆ 기독교용품
- ◆ 일반서적
- ◆ 서예용품 전문
- ◆ 2016년 달력제작



## 상담 환영!

교회에서 행사할 때 수련회 단체 T셔츠 한글학교 단체복 원하는 디자인으로 해드립니다.

이메일 상담과 주문 bookskorea@gmail.com



###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13)

#### 기도는 주의 능력을 확신하게 한다



윤병이 목사 (부산반여제일교회 담임)

확신의 사람으로 변하기 위해 기도하자

창세기 32장 26절 이하에 보면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던 야곱은 형 에서를 400명의 종을 이끌고 마주 온다는 말을 듣게 된다. 20년 전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 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과오를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게 된다. 야곱은 두려운 마음을 이기기 위해 가족을 두고 혼자 압복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 축복해 달라고 밤새도록 불들과 놀아진다. 천가가 날이 새려하

었다. 야곱처럼 기도하여 마음속에서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완전히 몰아내고 어떠한 경우에도 확신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기도만이 확신을 준다. 다니엘도 기도하였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고, 다니엘의 친구들도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기도만이 만사에 확신 있는 삶을 준다.

자신을 믿지 말고 주의 능력을 믿으라

기도는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행위 자체이다. 내 능

사자 굴에 드려간 다니엘의 믿음은 바로 용기였다(단3:13-18).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웃으며 죽음을 맞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의 용기가 아닌가? 베드로의 경우에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을 부인했던 처음과 담대한 복음 증거자가 된 나중이 달랐던 것은 바로 용기의 유무 때문이 아닌가?

초대 서머나교회 목회자였던 폴리갑에게 순교 직전 체포해가는 경찰이 말했다.

“목사님,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고 풀려나오셔서 다시 예수를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한번만 부인하십시오.” 그랬더니 폴리갑은 “여보게, 나의 주님은 내 80평생에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구차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내 주님을 부인하겠나? 그렇게는 못하네.”

그리고 폴리갑을 화형시키기 위해 장작더미에 기름을 뿌리고 그 위에 올려놓고 경찰이 손발을 묶으려하자 다시 입을 열었다. “그냥 두게. 주님께서 내가 몸부림치지 않게 도와주실 것이네.”

결국 폴리갑은 묶이지 않고 훨훨 타는 장작더미 위에서 장렬하게 순교했다. 바로 이 믿음도 용

###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교회)

#### ‘심과 성’

교회에서 휴가를 받을 때면 남편과 이곳저곳을 다녀본다. 우리가 다닌다고 해야 총회, 세미나, 선교모임... 이런 것들이었지만 그래도 낯선 곳에서 며칠씩 살다 보니 그동안 익숙해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았던 익숙한 것들에 대한 고마움이 다시 밀려온다. 우리 집이 좋고 우리 동네가 좋고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 우리 사람들이 진짜 좋고... 그러면서 삶에 대해서 아무런 미안함도 고마움도 없이 아침마다 눈을 떠든 일상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새롭게 올라온다.

그렇다. 삶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바로 내가 사는 삶이다. 그래서 날마다 나의 ‘심과 성’(마음과 성품)을 수련하려 공리를 하고, 책을 읽으며, 기도로 무릎을 꿇다가 계시처럼 떠오르는 생각들을 소중하게 모아 안으며, 내 삶이 얼마나 시온의 대로 같고 내 자신이 얼마나 시원한 사람인지를 알아차리며 이 신선한 가을 숨을 만끽해본다.

삶은 그런 것 같다. 일단 내가 발을 내 디어야만 알아지는 비밀이 있다. 흥해가 갈라진 것은 모세가 기도할 때도, 지팡이를 내려 쳤을 때도 아니라, 흥해는 모세가 발을 내딛을 때 비로소 갈라졌다. 그런 걸 우린 용기요, 결단요, 담대요, 모험, 경험...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결론은 ‘믿음’이리라.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거기에 지혜의 가속도가 붙고 요령이 터득되어지고, 사는 것이 쉬워지고 어쩌면 매달리지 않아도 저절로 풀리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지 않을까.

나이의 키가 욱 자람에 따라 마음에 들어오는 색깔이 있다. 그리고 그게 무슨 ‘심과 성’의 질을 나타내듯이 그 색깔의 옷을 입고 스카프를 사고 그 색깔의 노트를 사며 그 색깔만 보면 나를 본 듯하여 흥분되고... 그래서 급기야는 성도님들이 누가 그 색깔의 물건을 갖고 있는 것만 보면 ‘그것 사 모님 드러라’ 할 정도로 나를 대변하는 색깔이 되었다. 그 색깔을 좋아하는 나의 저의가 뭘까... 결국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그래서 나의 맛과 향과 심과 성의 모든 조화가 그 색깔을 통해 전달되기를 내심 바라는 심산이리라.

사람이 의식지수가 300이 되면 무엇이든 자발성으로 할 수 있으며 그것이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성의 시작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애틀랜타에 가서 세미나에 참석하는 중에 이런 연수를 해 보았다. 한 발자국 더 느리게 사는 연습... 조금만 더 천천히 씹어 먹으며 밥과 반찬을 음미해 보고 조금만 더 유유자적한 걸음걸이로 땅과 나무와 건물과... 그런 것들과 인사해 보고, 가끔은 게으르게 사는 자신을 용서해 주면서 조금만 더 천천히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며 그분의 음성에도 세밀히 귀를 기울이는 연습... 늘 바쁘고 조금씩 사는 나의 모습은 바로 지혜 없음에서, 욕심에서, 게으름에서 오는 산물임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아직도 서툰 나의 삶의 현 주소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다.

그렇다. 바깥 날씨에 늘 주의를 기울이며 살듯이 조금만 서로의 마음의 날씨를 알아차리면, 누구에게나 맘 속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는 그 ‘심과 성’, 그 진짜가 보일 텐데...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게 되는데... 그리고 그때 보는 것은 전과 같이 앓을 텐데... 사랑 없이 보려하니 그렇게도 감찰할 수밖에...

울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소리를 한번 마음껏 지르고 싶은데, 분해서 화를 한번 내고 싶다는데, 그저 한번 풀어줄 곳을 찾지 못해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들... 힘들어 지쳐도 놓면 죄 짓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일하는 것이 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의 영혼 질서가 하나가 회복이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가슴을 찾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주의 원리인데... 그 순서 하나 바로 매기지 못해 안절부절인 우리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뭐 별게 있겠는가? 우리는 때로는 책을 잘못 고르듯이, 의사가 오진을 하듯이, 상대의 마음도 또 나 자신의 마음도 잘못 진단하여 맘을 상하게 할 때도 또 상처를 줄 때도 있지만, 그게 우리의 본심이 아니었음을, 우리 속에 깊숙이 자리한 진짜 ‘심과 성’이 따로 있음을 알아주는 것, 그렇게 이해해주고 한 발자국 다가가주고 그리고 그게 고마워서 눈물을 글썽거리며 사는 것... 그런 ‘심과 성’들이 만나 더 잘 조율해서 최고의 ‘심과 성’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한 수이리라.

### 기도응답 받으려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정복하고 확신 평안 유지

#### 내가 가진 능력, 지식, 지혜, 경험 등 모든 것 부정하는 행위가 기도

님은 우리가 평강하기를 원하신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14:27).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믿음이 무엇인가? 배짱과 용기가 아닐까? 다투어 끌려왔을 공격할 때도 그 믿음이 용기와 배짱이 없었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19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셨으며, 이사야 41: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셨다. 이 말씀을 확신하며 영혼에 힘을 얻고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험하게 살아가야 한다.

므로 떠나고자 할 때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노라고 목숨을 걸고 졸라댔다. 그 때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훤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베엘에서 몇 번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체험도 했다. 그러나 새로운 상황 가운데서 아직도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질 정도의 확신이 없었다. 확신의 단계에 들어서지 못하면 알면서도 약해진다. 믿으면서도 두려워한다.

예수님의 경우 셋째마네 동산의 기도가 왜 필요했겠는가? 당신이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다.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다. 그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는 동안의 두려움과 고통을 이길 만큼의 확신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었다.

우리는 성경지식이 많다고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신앙경력이 많다고 자랑하지도 말아야 한다. 확신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내 지식, 내 지혜, 내 경험 등 내게 관한 모든 것을 부정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이다. 내 것을 조금이라도 인정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기도는 드릴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믿고(빌 4:13)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의탁하는 행위가 기도이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순간엔 자기를 부정하고 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해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을 일으킨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기고 올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기도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성령의 인도와 도움을 구하기 위해 단에서 밥을 지새울 때가 많다. 그러므로 육체를 이기는 기도를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최대의 복이 기도라 할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면 불신자와 다를 바 없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은 연약한 인간에게 힘을 주시고 돕겠다는 약속이다.

믿음이 있으면 용기도 생긴다

기가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용기와 배짱이 수반되어야 진실한 믿음이다.

여러분! 특별히 주의 종들이여! 주님은 혼순간도 어김없이 지켜보시는데 우리는 슬스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교인들의 비위나 맞추면서 늘어죽도록 자리나 지키며, 밥이나 얻어먹으려고 세월만 보내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스테반 집사가 죽기 전에 예수만 부인했으면 돌에 맞아 죽지 않고 살아났을 것이고, 주기철 목사님도 주님을 부인하고 신사에 참배했다면 살아서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총회장도 하고, 또 무슨 총재도 하셨을 것이다. 그랬으면 과연 주님이 기뻐하셨을까? 주님은 죽는 날까지 지혜와 꾀로 일하는 척하지 말고, 주의 일을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다가 죽으라고 하셨다(계2:10). 그래서 주님은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 없는 자는 살리라”(눅 17:33)고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살아있는 오늘에 용기와 배짱을 가지고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증거하며 살아가야 한다.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6년도 목사 학력 및 고시 공고

###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6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16.

Those who wish to become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send in all the necessary documents to begin the process. Those who prefer the use of English may submit all documents and take exams in English.

#### 1.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 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6)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 2. Examination Date and Place:

- 1) Dates: May 13(Fri)-16(Mon) 2016
- 2) Place: Philadelphia USA

#### 3. Examination Subjects

- 1) Written Test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 2) Written Assignment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3) Thesis Paper, (4) Manuscript of Sermon
- (1) OT Exegesis Text - Malachi 4:1-6
- (2) NT Exegesis Text - 1 Corinthians 2:1-5
- (3) Thesis Topic - What is the Biblical view on homosexuality? Elaborate the Church's response on this issue.
- (4) Sermon Text - NT: Romans 1:18-32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 1.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 2. Use 12-point font and double space the text.
  - 3.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 4.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for thesis,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 5.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Jameshur63@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 a)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 b)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YunJoonHur-OTExegesisPaper.pdf)
    - c)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 3) Oral Interview

#### 4. Accompanying Documents

- 1)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with M. Div. degree of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s is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6.
- 2)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 3)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4)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 5) Curriculum Vitae(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infant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6)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7) Fee: \$150(US). (Pay to the order of - The New Life Presbyterian Church of NY)

#### 5.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1)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16.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15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2)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 3) The result of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0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17-20).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introduced to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 6. Miscellaneous Information

- 1)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13-16 2016 Philadelphia) through Rev. Yun Joon Hur (718)637-1470. (Jameshur63@hotmail.com)
- 2)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 room.
  -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 7. Submission Address

Rev. Yun Joon Hur / Address: Cell : (718)637-1470 E-mail : Jameshur63@hotmail.com

#### 8.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1) Chair of the Exam Committee : Rev. Hyun-in Kim (201)875-8212 (Hyuninkim@hotmail.com)
- 2) Clerk of the Exam Committee : Rev. Yun Joon Hur (718)637-1470 (Jameshur63@hotmail.com)
- 3) Treasurer of the exam committee : Rev. Dae Yul Kim (339)223-2763 (Daenaree@yahoo.com)





목회서신

들으라 깨어라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여승훈 목사

언젠가 며칠 동안 여행을 다녀와서 집에 들어서자마자 막무가내 밥과 김치를 찾았던 적이 있다. 며칠 여행하는 동안 주로 양식으로만 식사를 하다 보니 밥과 김치가 정말 먹고 싶었다. 필자의 아내가 차려준 맛있는 쌀밥에 김치 한 점 없어도 되는데 마치 십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마음의 시원함을 느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다. 밥과 김치는 수십년 그리고 평생을 매일 먹고 살아 오는데도 어떻게 전혀 싫증나는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일까? 매우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할수록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세상의 대부분의 일들은 세월이

지나면 마음의 싫증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밥과 김치를 먹으면서도 마음의 싫증을 느끼지 않는 것은 밥과 김치가 가져다주는 특별한 의미 때문이다. 특별한 의미라는 것은 밥과 김치가 단순히 우리의 입맛을 돋구어주는 기능의 차원을 넘어서 실제로 우리의 신체를 자라게 하고 튼튼하게 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밥과 김치를 주 메뉴로 여겨온 한국 민족에게는 밥과 김치는 평생에 걸쳐서 쉼 없이 먹을 수 있는 불가사의의 관계라 할 수 있다. 민족마다 주 메뉴는 약간씩 차이가 있었지만 각 민족들이 취하는 주 메뉴는 육체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육체의 성장과 육체의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절대적으로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 섭취하여야 할 주 메뉴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 주 메뉴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면 육체적으로 서서히 쇠약해져 가는 것이다. 비실거린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약해진다는 뜻이다. 육체적으로 약해지면 쉽게 질병에 걸리게 된다. 이런 원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생활에도 그대로 정확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 영적인 주 메뉴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건감지 못하게 되면서 이런 저런 영적 질병에 시름 거리게

된다. 여기서 영적인 주 메뉴의 두 경을 열기 전에 영적인 스낵에 대하여 잠깐 생각해 보자. 스낵을 잔뜩 먹고 나서 정식으로 식사를 하려고 한다면 어떨까? 아마 몇 순가락 끝까지 먹다가 손가락을 내려놓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스낵으로 이미 배가 채워져 있고 또 한 스낵으로 이미 입맛이 변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현대 교회에 있어서 가장 경종을 울려야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스낵들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군대군대 영적 스낵의 위험성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었다. 사도 바울이 경종을 울렸던 영적 스낵은 헛된 속임수로 표현된 헛된 철학과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고 더 고상하게 생각하는 세상의 초등 학문들이다. 정식 주 메뉴보다 스낵 종류를 더 많이 섭취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세월이 지나면서 틀림없이 크고 작은 성인병들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영적인 스낵에 해당하는 세상의 헛된 철학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영적인 주 메뉴보다 더욱 많이 섭취하면 결과는 너무나

뻘 한 것이다. 이런 저런 영적 질병에 걸려서 정말 보기 흉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당신이 지역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우 단순한 질문 하나를 던져 보고 싶다. 당신과 당신이 속한 교회가 건강하게 그리고 꾸준히 성장해가기를 기대하는가? 그렇다면 영적인 스낵들을 내려놓는 결단을 취하라. 영적인 스낵들은 표면적인 맛을 부리기에는 그럴 듯 하지만 속으로는 꿀아 터지게 하고 썩어지게 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라. 영적인 스낵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영적인 주 메뉴를 붙잡으라. 영적인 주 메뉴가 무엇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더 이상 신학이 철학과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고 더 고상하게 생각하는 세상의 초등 학문들이나, 정식 주 메뉴보다 스낵 종류를 더 많이 섭취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세월이 지나면서 틀림없이 크고 작은 성인병들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영적인 스낵에 해당하는 세상의 헛된 철학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영적인 주 메뉴보다 더욱 많이 섭취하면 결과는 너무나

개척자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컵의 표면만 터치하고 컵의 속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다고 지적한다. 현대의 기독교가 꼭 귀담아 들어야 할 소리가 아닐까 싶다. 도대체 개혁이 무엇이며 개혁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기독교의 개혁은 무엇인가 새롭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 원래의 자리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장소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다. 그래서 돌아가야 할 곳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가야 할 방향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제는 더 이상 표면적으로 무늬만 그리는 기독교는 중단하자. 속의 내용이 진리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꽂힌 그런 기독교를 꾸꾸어 가지. 이런 꼴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아름다운 하나님나라에 대하여 나누고 또 나누고 싶지 않을까?

'이 땅을 고쳐주소서!' 주제

2015 다민족연합기도대회, 29일 애나하임컨벤션센터

미국의 부흥과 회복을 위한 다민족 연합기도대회가 오는 11월 29일(주) 오후 4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애나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 땅을 고쳐주소서!' 라는 주제로 열리는 연합기도대회를 위한 기자회견이 2일(월) 오전 11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웨딩채플에서 갖고 다민족이 함께 연합으로 남기주는 물론 미국의 영적각성 및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소원하는 기도회를 갖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기도회는 그동안 11/11/11 다민족연합기도회부터 작년에 있었던 11/11/14 다민족연합기도회까지 가졌던 형식과 다른 형식으로 기도회가 진행된다. 지금까지의 다민족연합기도회는 각 민족별로 시간을 할당해 기도회를 진행해왔지만 이번 기도회는 참



2015다민족연합기도대회를 알리는 기자회견이 은혜한인교회 웨딩채플에서 열렸다

여하는 모든 민족이 함께 모여 기도회를 갖게 되며 기도순서도 한국, 베트남, 라티노, 필리핀, 일본 등이 연합으로 기도하게 된다. 각 민족별 기도인도자는 그들의 언어와 영어를 함께 사용해 기도회를 진행하게 된다. 샘한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기자회견은 김기동 목사(2015 다민족 기도대회 공동대표)가 인사말을 했으며, 라몬 아로요 목사(TV쇼 진행



울타리선교회가 주최한 노숙자들과 함께 찬양으로 추수감사예배에서 나주목 목사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울타리선교회, 노숙자들과 함께 추수감사예배 12월 19일 노숙자들과 크리스마스예배 드려

울타리선교회(대표 나주목 목사)는 노숙자들과 함께 찬양하는 추수감사예배를 10월 31일 오전 10시 30분 The Well Mission Church에서 열었다.

나주목 목사는 "한국의 추석과 미국의 추수감사절 사이인 10월말 노숙자들과 함께하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마련했다"고 전하며, "올 한 해 울타리선교회가 노숙자 사역을

은혜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되서 감사하다. 특별히 이번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따뜻한 추수감사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나주목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추수감사예배는 Road to Him Ladie's Ensemble, 소노로스 남성중창단, LA Peniel Chorale, 김미선 목사, 테너 안성주 장로, 테너 최왕성, 소프라노 에이미 윤이 출연해 아름다운 찬양을 선사했다. 또한 오직예수교회 교인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이날 참석자들을 위해 음식을 서브했다. 한편 울타리선교회는 오는 12월 19일(토) 오전 10시30분 같은 장소에서 노숙자들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게 된다. ▲문의: (213)819-3300, 595-7073 (박준호 기자)

<4면에서 계속> 나와 세상을 비교하고 내 힘과 세상의 힘을 비교해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볼 때는 항상 좌절과 불가능의 벽에 부딪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말씀에 있는 열 명의 정탐꾼이나 백성들은 자기들의 능력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안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내 힘과 비교하지 않았습니 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가능성을 바라보았을 때 승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세 번째는 '미래 지향적'이라는 안경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과거에 집착합니다.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거를 자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미래의 소망보다도 지나간 일들을 못 잊어합니다. 본문에서도 열 명의 보고를 받은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걸...' 하고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고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안이 밝은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

고 천국을 바라보고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과 지적인 눈이 밝은 것은 대단히 귀한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안이 밝으면 그것은 더욱 귀중한 복입니다. 영안이 밝으면 우리의 인생길도 밝아질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날마다 교통하며, 주님이 함께 하시라는 그 믿음을 갖고 힘차게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과거를 붙들고 살지 말고 영원한 우리의 천국을 소망할 때 우리의 영안은 날로 밝아질 것을 믿습니다.



제13차 미주예성총회 및 목사안수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예수교미주성결교회 새 총회장에 최한오 목사 제13회 정기총회 및 목사 안수식

제13차 예수교미주성결교회 총회 및 목사안수식이 지난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남가주새언약교회(담임 강양구 목사)에서 '함께 가는 행복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열렸다. 총회는 총 3부에 거쳐 개회예배와 성찬예식, 그리고 목사 안수식 순으로 있었고, 토론토주님의교회에서 정원환 김형민 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날 개회예배는 미주총회 총무원 양승민 목사의 사회와 미국동부 지방회장 박순탁 목사의 기도, 캐나다 서부지방회장 남규 목사의 성경봉독, 헤세드글로브 예술선교회의 특별찬송에 이어 한국교단총회 장송덕목 목사의 설교, 미주총회 총회장인 장동신 목사가 지난 회기 수고한 각 지방회장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는 것으로 마쳤다. '사명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

David Song Singers 단원모집 전문혼성합창단, 연주 및 연습 수당 지불

40여 년 동안 음악사역에 종사해 온 송규식 목사가 남가주에서 전문 혼성합창단을 창단하고 단원을 모집한다. 현재 LA 마스터코랄 단원이며 독창자로 활동하고 있는 여선주 씨가 부지휘자로 협력한다. 단원 모집인원은 성악전공자 20명과 부전공자 20명(각 파트별 10명씩)으로 부전공자는 레슨 또는 부전공으로 성악을 공부한 자 중에서 선발한다. 아직까지 남가주에서는 단원이 이 사례를 받고 활동하는 전문합창

단이 없는데 Holy Voice Mission 이 주관하고 ALS MS 회사가 후원해 문화선교를 목적으로 본 David Song Singers(다윗의노래합창단)를 창단하게 된 것. 단원들의 사례는 연습수당 시간당 25달러, 찬조출연 수당 100달러, 연주수당 200달러이며 부전공자 단원들에게는 연습수당 시간당 20달러, 찬조출연 수당 80달러, 연주수당 160달러 씩이 매 회마다 지급된다. 단원모집 오디션은 Handel's

Messiah No.7 "And He Shall Purify"와 No.12 "For Unto Us A Child is Born"를 원어(영어)로 각 파트별 한 명씩 4중창을 하는데 무반주로 해야 하며 자유곡 1곡은 Legato곡을 무반주로 불러야 한다. 모집마감은 11월말까지 선착순으로 선발하며 오디션일정은 개별 통보한다. 정기연습시간은 매주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이며 연습장소는 3600 Wilshire Blvd. #1200(12층) LA. 신청방법은 qsong405@gmail.com으로 이력서(생년월일 기입)를 보내면 된다. ▲문의: 삼일지휘자 송규식 목사 (714-699-0210) (기사제공: David Song Singers)

<7면에서 계속> 그들이 추구했던 '영적' 신앙인의 모습은 결국 어떤 것이었는가? 주관적이며 금욕적이었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사명을 주셨다. 신앙의 자유와 함께 제도화된 교회는 이 일에 더욱 매진할 수 있었으며, 기대한 큰 열매를 얻기도 하였다. 문제는 기독교가 자유를 얻었다는 현실이나 그로 인해 더 이상 순교의 가능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교회가 나라의 보호를 받았거나 제도화 된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사람이다. 순교적 정신을 포기한 신앙인들의 태도이다. 하나님께서 핍박받던 교회를 향해 은혜를 베푸셔서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셨다고 확신하며, 지도자와 교인이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새 출발을 하지 못한 것이 문제이다. 순

교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교회를 떠나 순교의 정신을 이어가려고 노력한 자체는 매우 귀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상 교회 밖에서 찾은 '영적' 생활을 참된 신앙 전형이라고 주장하여, 조직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려 한 것은 매우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영적이다!'라는 말은 매우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혼동을 주었다. 2) 성경이 보인다 - 로마서 8:13; 갈라디아서 5:22-26; 고전 3:1-3, 16-17

면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특정한 사람들을 가리켜 "영적이다!"라고 할 때 주의할 것이 있다. 겉으로 드러난 어떤 사람의 성령의 은사가 그 사람을 '영적' 신앙인으로 결정 지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사람 안에 거하는 성령의 덕이 있느냐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은 남다른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 그를 인도하는 성령의 영향력인 말씀에의 순종이란 열매로 드러나는 성도이다. 육신에 속한 자는, 거듭나지 못한 자 또는 성화의 삶을 드러내지 못한 자를 가리킨다. 영적인 성도는 성령에 충만하다.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면서 반복적으로 변화를 경험한다. 이메일:covenantcho@yahoo.com (계속)



동부교계 게시판



2015 해외아동결연 "후원자의 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전희수 목사)가 주최하는 2015 해외아동결연 "후원자의 밤"이 11월 29일(주) 오후 6시 뉴욕초대교회(담임 김승희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646)270-9771

제 7회 바다위십 페스티벌

뉴욕청소년센터(대표 양희철 목사)가 주최하는 제 7회 바다위십 페스티벌 및 오바마 대통령상 시상식이 11월 29일(주) 오후 6시 뉴욕중신교회(담임 김혜택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718)353-1388 최지호 목사

좋은목자교회 이전축하 감사예배

좋은목자교회(담임 김진영 목사) 이전축하 감사예배가 11월 8일(주) 오후 5시 새 교회당에서 있게 된다.

▲문의: (516)203-2878

뉴저지 Joyful어린이선교합창단 단원모집

뉴저지 Joyful어린이선교합창단(지휘 이성은)이 합창단원을 모집한다. 2차 오디션을 신청서를 받고 있다.

▲문의: (201)580-2653

제 1차 심폐소생술 공개교육실습

미동부생명의전화(김영호 목사)와 대뉴욕한인간호협회가 주최하는 제 1차 심폐소생술 공개교육실습이 11월 12일(목)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강당에서 열린다.

▲문의: (718)213-8645

제 42회기 뉴욕교협 임원단 구성

총무 박진하 목사, 서기 한준희 목사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종명 목사)가 임원을 구성하고 제 42회기 시무에 들어갔다.



뉴욕백민교회 강기봉 원로목사(오른쪽)에게 임일송 위임목사가 추대패를 전달했다.

강기봉 원로목사 추대, 임일송 위임목사 임직

뉴욕백민교회가 지난 1일 강기봉 원로목사 추대, 임일송 위임목사 임직예배를 가졌다.

강기봉 목사는 이임사를 통해 "고달픈 이민생활에 위로와 사랑이 부족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다."

이날 예배는 노회장 이준호 목사 인도로 기도 임동열 목사, 찬양 호산나찬양대, 설교 고택원 목사(KAPC 부총회장, 필라 새한장로교회), 어린이 찬양 이이소리모아의 순서로 진행됐다.

고택원 목사는 "흰옷 입은 사람들"(예:7-9-17)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백민'교회의 의미인 한국선교 100주년의 '백'과 계시록의 흰옷 입은 사람이라는 '민'의 의미를 설명하며 "어떤 환난도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부 원로목사 추대식은 송종록 선교사(대학선교)가 강기봉 목사를

소개하고 신규창 안수집사가 원로 목사 추대 말씀을 한 후 원로목사 공포, 추대패 증정을 했다.

추대패를 이규본 목사(주비전교회), 임종학 목사(개혁 전 총회장, 전주제인교회), 답사 강기봉 목사, 축송 비브리컬신학교 한인동문/학생의 순서로 진행됐다.

임일송 목사 위임목사 임직식은 한병헌 장로가 임일송 목사를 소개하고 노회장 사화로 서약(목사, 교인), 공포, 임직패 증정이 있었다.

권병은 이승원 목사(위임목사에게), 양조경 목사(교인들에게)가 했으며 축사 김성희 목사(기독대학원회 대표), 답사 임일송 목사, 축송 동부개혁성진 동문/학생, 기념품 증정, 광고 이민홍 장로, 축도 최광진 목사의 순서로 마쳤다.

뉴욕백민교회는 1984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로 세워졌다. 1993년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에 가입했으며 담임 강기봉 목사는 2011년 KAPC 35대 총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동교회는 올해 30주년을 맞아 기념집 "돋는 해"를 발간해 이날 참석자들에게 배부했다.

(유원정 기자)

를 마치고 총무에 박진하 목사(원즈침례교회 담임), 서기 한준희 목사(뉴욕성원장로교회 담임)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임원은 아직 미정이다.

회장 이종명 목사는 뉴욕교협이 지난 회기에서 임원 활동비로 재정 문제에 큰 혼란을 겪은 만큼 이번 회기는 투명한 재정활동을 하겠다고 확언했다.



김수태 목사와 이인옥 사모가 이임예배에서 EMI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있다.

"100% 믿고 따라준 교인들에 감사" 뉴욕어린이양교회 김수태 목사 이임감사예배

뉴욕어린이양교회 김수태 목사 이임감사예배가 지난 1일 저녁 5시 동 교회당에서 열렸다. 이날 뉴욕목회자 1백여 명이 참석해 은퇴 후 한국에서 제 2의 사역을 시작하는 김수태 목사에게 성원을 보냈다.

김수태 목사는 "바다까지 갔던 인생이었는데, 이임할 때까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다"며, "100% 믿고 따라준 교인들과,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분들, 후임 박윤선 목사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예배는 C&MA 동부지역회 회장 김명국 목사 사화로 기도 이지영 목사, 특별찬양 뉴욕어린이양교회 찬양팀, 성경봉독 민병욱 목사, 설교 백한영 목사, 헌금특송 뉴욕목사합창단, 헌금기도 고기웅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백한영 목사(C&MA한인총회 감독)는 "하고픈 일이 아직도 많은

뉴욕교협 회장 이취임 예배는 16일(월) 오전 10시30분 뉴욕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린다.

한편 부회장 선거에서 한 표 차로 당선된 김홍석 목사(뉴욕능기본교회 담임)에 관한 '신문고'(뉴욕에서 인쇄되는 부정기적 인쇄물)에 게재된 비리(?)로 교계가 시끄러워질 소지를 안고 있다.

김홍석 목사는 총회에서 투표 직전 소견 발표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유원정 기자)



김수태 목사와 이인옥 사모가 이임예배에서 EMI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있다.

데"(수13:1-7)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여호수아는 46년간 전투를 했지만 그는 늙고 점령하지 못한 땅은 아직 많았다. 우리들도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다 하지 않아야 된 다. 중요한 일, 즉 하나님을 하라고 하시는 일만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면 된다. 예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세운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다. 그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자"고 말했다.

2부 이임식은 백한영 목사 사화로 이임목사 소개, 기도 김동욱 목사, 교회연혁 및 동영상 상영 김경우 장로, 이임사 김수태 목사, 감사와 공로패 증정, 축사 이종명 뉴욕교회회장, 권병길 C&MA한인총회 경증감독, 격려사 이만호 뉴욕목사회장, 축사 김철기 아미존선교사, 특별찬양 어린이양교회EM, 축도 방지각 목사, 만찬기도 김혜택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감사패는 뉴욕임원에게 김수태 목사와 동역했던 C&MA교단과 노회, 뉴욕교협, 뉴욕전도협의회, 뉴욕전도대학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탈북자협의회, 원주민선교회 등에서 전달했다.

특별히 이날 EM들이 김수태 목사에게 편지와 카드 등을 책과 향아리에 담아 전달하며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자 김수태 목사부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수태 목사는 한국에 거주하며 선교사역을 계속하고 가끔 뉴욕을 방문할 것이라고.

(유원정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외총회 제77회 뉴욕노회 정기노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예정(합동) 해외총회 제77회 뉴욕노회 정기노회

강도사 4명(김동욱, 노광문, 김성민, 김진형) 인허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외총회 제 77회 뉴욕노회 정기노회가 10월 14일 오전 10시 30분 뉴저지 소재 주혜수사랑교회(담임 강유남 목사)에서 열렸다.

제 1부 개회 예배는 노회장 김종태 목사(중앙장로복음교회 담임)의 사화로 진행됐다. 서기 이민철 목사가 기도, 노회장 김종태 목사가 소개 주혜수사랑교회(담임 강유남 목사)에서 열렸다.

축도했다.

제2부 성찬식은 증경노회장 강유남 목사가 집례했으며 누가복음 22장 14-20절 본문으로 "구원섭리와 주의만찬"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고, 분병은 양경욱 목사, 분잔은 황인용 목사가 했으며 총신대학원 이사장 유세우 목사가 축도했다.

제3부 회무처리는 노회장 김종태 목사의 기도로 시작됐다. 서기 이민철 목사의 회원 호명, 김종태 노회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 노회장

김종태 목사가 지시위원 양경욱 목사, 흡석사찰위원 황인용 목사를 임명, 강도사 청원권을 가결했으며, 변병두 장로가 재정보고를 하는 등 회무처리했다.

제4부 강도사 인허식은 노회장 김종태 목사 인도로, 증경노회장 정대영 목사 기도 후, 뉴욕총신대 총장 정익수 목사가 히브리서 11장 23-26을 본문으로 "지도자의 수칙"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노회장 김종태 목사가 강도

사 4명(김동욱, 노광문, 김성민, 김진형)에게 서약하고 강도사 인허증 수여를 했으며, 공포 후에 증경노회장 정대영 목사가 권병, 증경노회장 이대길 목사가 축도했다.

한편 정익수 총장은 오는 12월 8일(화)에 개최될 "제4회 뉴욕총신인(화)" 행사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당부했다.

(기사제공: 합동해외총회 뉴욕노회)

Large advertisement for '동부(NY, NJ) 교회' (East NY, NJ Churches) featuring a grid of church listings with photos of pastors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a central graphic with a dove and the text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초유의 사태... 남가주교협 총회 무산 신임회장 후보 강신권 목사 검증요구 청원서 배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최혁 목사) 제4회 총회가 무산됐다.

11월 2일 오전 10시30분 성경장 로교회(담임 강신권 목사)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남가주교협 총회

는 신임회장으로 예정된 수석부회장 강신권 목사에 대한 검증 요구 청원에 대해 남가주교협 공천위원회에서 최종반기로 하고 강 목사의 회장후보 공천을 부결시켰다.

교협 관계자에 따르면 강 목사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서가 교협으로 배달돼 이를 근거로 강 목사의 후보공천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강신권 목사는 지난 7월 20일 교협 월례회에서 수석부회장으

로 임명된 바 있다. 한편 총회가 열리기로 한 장소에는 총회 연기소식을 듣지 못한 총대 40여명이 모였으며, 총회연기에 대해 고성이 오가는 항의를 하기도 했다.

강신권 목사의 회장 공천이 부결됐다는 소식을 미리 접한 남가주교협 증경회장단과 남가주목사회 증경회장단은 총회가 무산됐다고 판단하고 같은 시각 LA의 한 식당에 모여 교협의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하고 공천위원회에 강 목사의 재검증에 대해 투명하게 밝힐 것을 서면질의를 통해 요구하기로 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LA기윤실주최 건강교회 포럼과 제4회 사회봉사상 시상식이 열렸다. 사진은 사회봉사상을 수상한 자들과 LA기윤실 관계자들. 원인은 건강교회포럼에서 강의하고 있는 이학준 교수

## 강사 이학준 교수...최운형 나옥주 목사 등 수상 LA기윤실 건강교회포럼, 사회봉사상 수상식도

제16회 LA기윤실 건강교회 포럼이 '한인교회의 미래와 다음 세대'라는 주제로 10월 29일 오후 7시 캘리포니아인턴셔널대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LA기독교윤리실천운동(공동대표 허성규, 흥진관) 주최로 열린 건강교회포럼은 이학준 교수(폴리텍대학교 기독교윤리학)가 강사로 나서 강의했다.

자들의 70%가 교회출석을 하지만 그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지 못했다. 이민교회는 특성상 교회정책의 결정을 기독교인으로서 하는 것이 아닌 한인으로서 하게 된다. 그래서 권력다툼이 일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회에서는 2세들을 위해 교육관과 체육관 건축 등 외형적인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정착 그들을 가르쳐야 할 컨텐츠는 매우 빈약하다.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다. 또한 2세들을 위한 인제역시 교회 내에서 길러내야 한다. 그것이 우리들이 부름 받은 목적이다. 하지만 외부영입을 통해 2세 사역을 하려고 한다. 2세 사역자들의 대부분은 멘토링을 받아야 할 입장"이라 지적했다.

이학준 교수는 "이민교회의 차세대 사역은 신앙이며 한국인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게 되며 그들이 사회에서 어떠한 차별이 오더라도 극복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제4회 LA기윤실 사회봉사상 수상식이 함께 열렸다. 수상자로는 지난 3년간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지역을 섬기는 여름학교를 열어 자녀들이 보람 있는 방학을 보내도록 교육을 담당해 온 세계선교교회 담임 최운형 목사, 16년간 한인연장자를 위한 커뮤니티 봉사를 실천하면서 다온타운의 홈리스 무료급식 사역을 감당해 온 율타리선교회 나옥주 목사, 그리고 지난 14년간 오픈지 시 인근의 노숙자들과 함께 주일예배를 드리며 노숙자의 자립과 재활을 위해 봉사해 온 이종남, 방영자 부부에게 수여됐다.

또한 이 교수는 "현재 미국은 영적으로는 바벨론 포로기에 들어가 있다. 그것은 미국내 기독교인들의 인구가 소수가 됐기 때문이다. 기독교정신이 강한 남부지역 역시 10-15년 후면 무너지게 될 것"이라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한인인민교회는 거룩성을 지키지 못했다. 그 결과 이민



좋은마을교회는 새생명전도축제 및 김수환 장로 장립 및 파송예식을 가졌다.

## 좋은마을교회 새생명 전도축제 김수환 장로 장립 및 파송예배

좋은마을교회(담임 신원규 목사)는 새생명 전도축제와 김수환 장로 장립 및 파송예배를 11월 1일 정오에 거행했다. 이날 파송예배는 본 교회 김수환 집사 장로장립식이 있었고 워싱턴주 시애틀 지역에 장립되는 워싱턴좋은마을교회로 파송하는 순서를 가졌다.

본 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신원규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전병일 장로가 기도했으며 본 교회 벽돌성가대가 찬양했다. 이어 신원규 목사가 '예수생명, 내생명'(고전 2:12)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신원규 목사는 "교회 밖에서는 호흡하는 자를 사는 자로, 죽은 자는 호흡하지 않는 자로 이야기한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가 산 자이며,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가 죽은 자라고 한다"고 말했다.

신 목사는 "육적인 혈통으로 태어났지만 어느 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나를 구속해주신 메시아라고 믿는 그 시간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는 믿음이 다. 예수생명을 받은 자로 성실하게 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열린 김수환 장로 임직식은 서약, 안수기도, 공포의 순서로 이어졌으며 이호민 목사(미주복음주의 총회 부총회장)가 축사 및 격려사를 했으며, 임직 받은 김수환 장로에게 신원규 목사가 임직패를 전달한 후 파송선포를 했다.

이날 예배는 박성민 목사(아주사 퍼시픽대학교 부총장)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더텐트 파킹랏 콘서트와 '홀리원콘서트'라는 주제로 열렸다. 사진은 LOG 미니스트리의 공연 모습

# 서부교계 게시판

### 올림픽교합창단 제 9회 정기연주회

제 9회 올림픽교 합창단(총지휘 이우진) 정기연주회 및 행사가 11월 7일(토) 오후 7시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진행된다. 올림픽교합창단은 올림픽경찰서 미래 경찰 청소년과 오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돕고 있다. ▲문의: (213)254-7003, (213)663-5183

### 제 22회 남가주장로성가단 정기연주회

남가주장로성가단(단장 이흥주 장로) 제 22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11월 14일(토) 오후 6시 30분 나성한인교회에서 열린다. 남가주장로성가단은 1992년 교파를 초월한 20여개 교회에서 모인 25명의 장로들이 모여 시작되어 현재 100여명의 단원들로 구성돼 있다. ▲문의: (213)321-7704

### 문인귀 시인 문학세미나

시인, 소설가인 문인귀 씨(미주한국 문인협회 고문) 초청 문학세미나가 11월 7일(토)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아나하임시에 위치한 남가주사랑교회(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6)에서 열린다. ▲문의: (213)300-7131

### 제 1회 남가주신학대학교 연합설교 페스티벌

제 1회 연합설교페스티벌이 11월 7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나성영락교회 본당에서 개최된다. 이날 설교 본문은 빌립보서 3장 10-16절. 이 페스티벌은 차세대 영적 지도자로서 장차 이민교회의 세계 선교현장에서 헌신할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설교문화 정착과 말씀으로 돌아가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자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 ▲문의: (562)926-1023(ext 303)

### 박성규 목사 출판기념 감사예배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 담임)가 '말씀이 불이 되어'를 출간하고 11월 8일(주) 11시30분 동 교회에서 출판기념 감사예배를 드린다. ▲문의: (310)325-4020

## 한어권과 영어권, 음악으로 하나돼 더텐트 홀리원 콘서트 성황

더텐트(대표 다니엘방 목사)가 주최한 파킹랏 콘서트와 '홀리원 콘서트'라는 주제로 10월 31일 오후 7시 거주영어학교 1층 주차장에 마련된 특별무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콘서트는 할로윈데이로 분주한 저녁시간임에도 참석한 청중들이 즐겁게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을 보였다.

들로 구성된 LOG 미니스트리 팀이 함께 모여 공연했으며, 서로의 퍼포먼스에 환호하며 박수갈채를 보내고 공연 후 서로의 공연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한어권과 영어권이 하나가 됐다는 평을 받았다. 이는 남가주지역의 청년사역에서 영어권과 한어권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공연은 세계가가페선교회 회 찬양밴드(WAMC), 지저스 파이브의 멤버인 이찬영 씨, 소프라노 김은혜 씨, 그리고 합창단을 기반으로 찬양과 댄스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LOG 미니스트리 팀이 출연했다.

또한 8-90년대 CCM으로 찬양을 한 지저스 파이브 이찬영 씨의 90년대 공연과 UC버클리 출신으로 다수의 오페라 활동을 하고 있는 소프라노 김은혜 씨의 공연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박준호 기자)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서부(CA)교회안내

<h4>감사한인교회</h4> <p>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5:30(월-토) 영어예배: 오후 9:30, 11:30</p> <p>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h4>나성순복음교회</h4> <p>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lafgusa@yahoo.com / www.lafg.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h4>나성영락교회</h4> <p>담임목사: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 예배: 오후 7:3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청년) 새벽기도: 오후 3:00(월-토), 6:00(토)</p> <p>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ck.com</p>	<h4>나성제일교회</h4> <p>담임목사: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p> <p>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h4>나침반교회</h4> <p>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일요일예배: 오전 5:30 토요일예배: 오전 6:30 EM, 대학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62)691-0691,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amp; Fuenite) www.nachiban.org</p>	<h4>남가주든든교회</h4> <p>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p> <p>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p>	
<h4>남가주사랑교회</h4> <p>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7:20 주일 2부 예배: 오전 9:2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20 월요일 예배: 오후 1:20 평일예배(월-토): 오전 9:20 2부: 오전 11:2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h4>대흥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 예배: 오후 7:30</p> <p>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hkc.org</p>	<h4>동문교회</h4> <p>담임목사: 김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p> <p>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07 www.dgkcc.org</p>	<h4>디아스포라선교회</h4>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우리의 동심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p> <p>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8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p>	<h4>드림교회</h4> <p>담임목사: 정영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영어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p> <p>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p>	<h4>미주양곡교회</h4> <p>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류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p> <p>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h4>미주평안교회</h4> <p>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 4부예배: 오후 2:00(월-토)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p> <p>www.mjca.org Tel: (213)381-2202 /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h4>빛과 소금의 교회</h4> <p>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오전 6:00(토)</p> <p>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p>	<h4>베델인민교회</h4> <p>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청년) 성인영어예배: 오전 11:00 대학영어예배: 오후 1:00 일요일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p> <p>Tel: (949)854-4010 / E-mail: bebel@bkc.org 18700 Harvard Ave., #4 Irvine, CA 92612 www.bkc.org</p>	<h4>복음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h4>세계소망교회</h4> <p>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Tel: (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h4>요셉선교교회</h4> <p>담임목사: 정상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저녁 7:30 금요일예배: 저녁 7:30 목요예배: 오후 5:30</p> <p>Tel: (213)380-0071, Cell: (213)215-8523 38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p>	<h4>열매교회</h4> <p>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목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310)380-0071, Cell: (213)215-8523 38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p>	<h4>얼마인침례교회</h4> <p>담임목사: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p> <p>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Bimini Pl., Irvine, CA 92604</p>
<h4>월서크리스천교회</h4> <p>담임목사: 염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청년) 수요예배: 오후 2:00(미주총회)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예배(월-토): 오후 6:00</p> <p>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p>	<h4>은혜인민교회</h4> <p>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토요일예배: 오전 6:00(월-토) 24시간 온오프</p> <p>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h4>주님의영광교회</h4> <p>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p> <p>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jcc.org</p>	<h4>주님의제자교회</h4> <p>담임목사: 이선자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예배: 오전 11:00</p> <p>Cell: (714)220-7660 3026 W. Ball Rd., Anaheim, CA 92804 jesusunja@gmail.com</p>	<h4>좋은마을교회</h4> <p>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p> <p>www.socalsamsungchurch.org Tel: (714)646-9239 Fax: (714)6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h4>코너스톤 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www.cornestonech.com / e-mail: pastor@corne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3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102</p>	<h4>토렌스교회</h4> <p>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월-토)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주일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p> <p>www.torrance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850 Mainway Ave., Torrance, CA 90503</p>



## 한국선교연구원, 선교사 170명 설문 결과 발표

전 세계에 파송된 한국 선교사들은 동료 선교사와의 갈등을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꼽았다. 또 선교사들에게 위기가 찾아온 시기는 파송 후 4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선교연구원(KRIM·원장 문상철)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사랑의교회에서 '한국 선교사 멤버케어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한국교회는 선교사 개인과 가정에 대해 영적·육적 돌봄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KRIM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2-9월 까지 현장 선교사 17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으며 올 1~5월까지 20명의 선교사와 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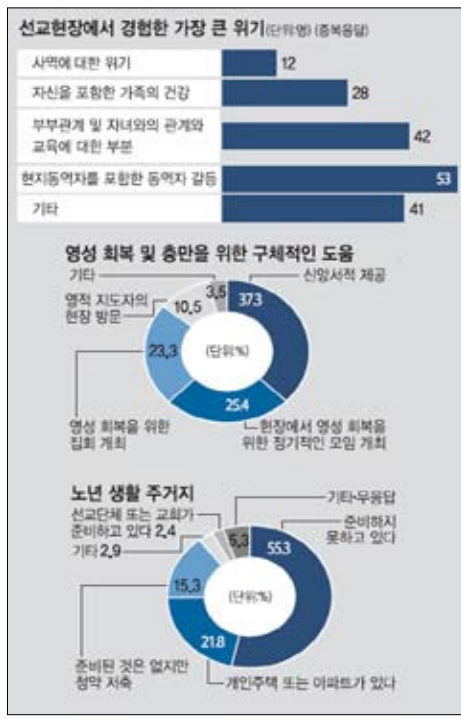
사의 어려움(12.3%) '기타'(7.0%) 등을 꼽았다.

선교사들은 성숙한 대인관계를 위해 '영성회복'(55.2%)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고, '주제에 적절한 세미나'(23.2%) '전문가 상담'(12.4%) 등을 요청했다. 대인관계 성숙을 위해서는 '가까운 지인들'(33.5%)이나 '선교단체 책임자'(18.8%) '다양한 동료'(12.4%)와 의논했다고 답했다. '의논한 적이 없다'는 선교사도 30.0%나 됐다.

문상철 원장은 "대인관계를 성숙시키기 위한 의논 대상에 적잖은 선교사들이 '의논한 적이 없다'고 답한 것은 선교사들이 개인영성은 강조하지만 기도부탁이나 상담, 말

많았다(중복응답). 이에 따라 선교사 파송 후 첫 시기에 교회나 단체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선교사들은 영성 회복을 위해 '신앙서적 제공'(37.3%)을 가장 선호했다. 이어 '영성 회복을 위한 정기 모임'(25.4%) '영성 회복 집회'(23.2%) '영적 지도자 현장 방문'(10.5%) 등을 꼽았다.

은퇴와 관련해서는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54.7%, '준비하고 있다'가 43.5%로 나타났다. 노년에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선교 연구원 및 교수'(26.1%) '교회 선교 담당 사역자'(19.7%) '국내



## 선교사들 가장 큰 위기는 “동역자와 갈등”... 부부·자녀관계-건강문제 순

층 인터뷰했다.

동료 선교사와의 갈등은 한국 선교사들의 고질적 문제이다. 설문조사에서는 대인관계가 어려운 이유로 '문화 및 가치관 차이'(34.5%) '성격 차이'(30.4%) '상대방의 욕심과 강한 주장'(15.8%) '의사결정에

스름 나눔 등 사회적 차원의 영성은 '귀소할하기 때문'이라며 "선교사들이 '외톨이 영성'으로 흐르지 않도록 QT나눔이나 단체 기도회 등을 보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기가 찾아온 시기와 관련해서는 '1~4년까지'가 95명도 가장

외국 이주자 선교사'(17%) '귀농'(10.6%)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연구원이나 교수직은 아직까지 비현실적이어서 향후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선교사 멤버케어 방안으로 '일과 쉬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가르칠

것' '가족 안에서 친밀감을 누리고 정서적 교감을 나누도록 유도할 것' '선교지 상황과 선교사 배경, 선교단체 여건을 고려해 상황화 할 것' 등이 제안됐다.

## 학원복음화협 '캠퍼스 사역 콘퍼런스' 개최

"한때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던 세대가 이젠 취업·연애·결혼·출산·내 집 마련·대인관계·꿈을 포기한 'N포 세대'가 됐다."

학원복음화협의회(학복협)가 지난 26일 서울 성동구 행당로 무학교회에서 개최한 '제8회 2015 캠퍼스 사역 콘퍼런스' 발제자 윤호호 한국대학생선교회(CCC) 학원사역연구소장이 강의 중 한 말이다. 1980년대 중후반까지 민주화를 이끌고 90년대엔 대중문화의 주도세력이던 청년세대가 어느 새 끝없이 포기만 하는 '좌절의 아이콘'이 됐다. 꿈과 자력조차 박탈당한 이들에게 기독교는 어떤 위로를 건낼 수 있을까.

◇종교에 관심 없는 세대... 최대 관심사는 '전공' '취업' '캠퍼스 생태계 변화에 따른 선교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윤 소장은 CCC 학원사역연구소가 조사한 '2013-015년 대학 신입생들의 종교의식' 내용을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대학 새내기들의 최대 관심사는 '전공 공부'(53.2%)다. 그 뒤로 '대인관계'(39.7%) '여행'(30.8%) '취업준비'(17.1%)가 이어졌다. 기독교 학생들의 관심사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올해 CCC 수련회에 참가한 대학생 절반 이상이 최대 관심사로 '취업'(34%)과 '진로'(24%)를 꼽았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답한 학생은 14%에 그쳤다.

청년들의 관심이 취업을 위한 이른바 '스펙 쌓기'에 집중되면서 종교 관심도는 대개 떨어지고 있다. 종교가 없는 올해 대학 신입생에게 향후 어떤 종교를 택하고 싶은지를 묻자 '갖고 싶지 않다'(88.6%)

적했다.

윤 소장은 "최근 3년간 CCC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교인 대학생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로 '흥미가 떨어져서'란 답변을 가장 많이 꼽았다"며 "학원사역단체는 앞으로 종교에 무관심한 이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선교 방법을 더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독선적 포교 벗고 진정성 있는 친구 돼야=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다 보니 캠퍼스 전도에 대해서도 대부분 관심이 없거나 부정적 견해를 보인 경우가 많다. 올해 대학 새내기들은 전도에 대해 '관심이 없다'(40.5%)고 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거부감이 들었다'(28.8%)고 응답했다. 거부감이 든 이유는 '전도 방법이 싫

성향이 높아져서' 그런지 이전 같은 방식으론 전도는 커녕 대화를 나누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무한경쟁에 내몰린 청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전도에 앞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게 캠퍼스 사역자들의 중론이다.

윤 소장은 "N포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들 눈높이에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전도 이전의 전도'가 중요하다"며 "이들의 문제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기도하며 인내한 뒤 기회가 주어질 때 복음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세대와 소통하는 캠퍼스 선교'를 위해 지역교회와 선교단체가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소장은 "대학은 군대에 비해 5~6배나 많은 청년이 모인 진정한 '영적 황금어장'이지만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2014년(78.5%), 2013년(71.8%)보다 더 높아진 수치다.

이번 콘퍼런스에서 '대학의 역사와 정체성에서 본 캠퍼스 선교'를 발제한 김유준 연세차세대연구소장은 90년대 중반 기존 학생운동권의 붕괴와 외환위기가 대학생들의 '무교 성향'에 깊은 영향을 미쳤

## 無教 대학신입생 89% “종교 갖고 싶지 않다” 공감 우선·인내 필수...전도는 천천히

다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대학생들이 거대 담론보다 개인적 상황을 중시하고, 경제위기로 구직난이 심화되면서 대학이 '취업·고시학원'으로 전락했다"며 "대학 생태계 변화에 따라 대학 내 선교활동도 90년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대폭 인원이 줄었다"고 지

어서'(35.9%) '종교를 권유하는 행동이 싫어서'(34.8%) '전하는 내용에 동의가 안 돼서'(20.4%) 등이었다. 한 선교단체 간사는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왜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 종교를 권하느냐. 쉬고 싶으니 방해하지 말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다"며 "개인주의

한국교회는 심각한 정도로 캠퍼스 선교에 관심이 없는 편"이라며 "지역교회가 학원선교단체 사역과 사역자를 장기적으로 지원할수록 진리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을 회복하는 청년들이 캠퍼스에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 일대에서 열린다. 선교한국 대회는 통상 회원단체인 학원선교단체가 돌아가며 주관하는데 이번 대회는 조이선교회(JOY Mission)가 맡았다.

대회 주제는 '그런즉 우리도(Let us, then)'이며 주제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13절이다. 대회 성경강해는 커크 프랭클린 위클리프국제연대(WGA) 총재와 화중부(남서울교회) 목사가 맡는다. 주제 강연 강사로는 김용훈(위싱턴 열린문장로교회) 목사와 탐핀 어바나(Urbana) 선교대회 디렉터, 천민찬(OM) 이 믿음(프론티어) 선교사 등이 나선다. 영역별 주제 강의로 4개 부문별 150개 강의가 개설됐으며 선교사와 선교사 지망생이 만날 수 있는 '멘토 캠프·대회' '지역별 세미나'도 열린다.

## “선교한국, 교계 선교 인식 고취에 기여”

### 선교한국, 2016년 대회 설명회 및 연구 결과 발표

27년간 격년으로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연합선교대회를 개최한 선교한국(상임위원장 이대행 선교사)이 한국교회의 선교 인식 고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선교한국 조직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신반포교회에서 '선교한국 2016 대회 설명회 및 선교한국 미래를 위한 연구 결과 발표회'를 열고 연구 내용과 내년 8월에 열리는 '제15회 선교한국 2016 대회' 일정을 공개했다.

조직위원회는 1년 전 '선교한국의 미래를 위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해

특별연구팀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그간 선교한국 운동이 교계에 선교에 대한 인식 저변을 확대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다만 대회 참여 인원 감소와 약화된 학원선교 상황, 재정 확충 필요성 대두 등 현재 상황 대처에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아 향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선교 동원 대신 영적 각성으로 대회 목표 수정' '자신화학(Self Theologizing) 운동 보급' '해외선교와 사회선교 간 균형' '숙박·강의실 등 대회 환경 개선' 등의 과제를 연구 결론으로 꼽았다.

이날 조직위원회는 차기 대회 일정도 함께 공개했다. 제15회 선교한국 2016 대회는 내년 8월 1일부터 5박6일간 서울 광진구 세종대와 건국

대학신입생 89% “종교 갖고 싶지 않다”

공감 우선·인내 필수...전도는 천천히

특정연구팀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그간 선교한국 운동이 교계에 선교에 대한 인식 저변을 확대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다만 대회 참여 인원 감소와 약화된 학원선교 상황, 재정 확충 필요성 대두 등 현재 상황 대처에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아 향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선교 동원 대신 영적 각성으로 대회 목표 수정' '자신화학(Self Theologizing) 운동 보급' '해외선교와 사회선교 간 균형' '숙박·강의실 등 대회 환경 개선' 등의 과제를 연구 결론으로 꼽았다.

이날 조직위원회는 차기 대회 일정도 함께 공개했다. 제15회 선교한국 2016 대회는 내년 8월 1일부터 5박6일간 서울 광진구 세종대와 건국

대학신입생 89% “종교 갖고 싶지 않다”

공감 우선·인내 필수...전도는 천천히

특정연구팀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그간 선교한국 운동이 교계에 선교에 대한 인식 저변을 확대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다만 대회 참여 인원 감소와 약화된 학원선교 상황, 재정 확충 필요성 대두 등 현재 상황 대처에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아 향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선교 동원 대신 영적 각성으로 대회 목표 수정' '자신화학(Self Theologizing) 운동 보급' '해외선교와 사회선교 간 균형' '숙박·강의실 등 대회 환경 개선' 등의 과제를 연구 결론으로 꼽았다.

이날 조직위원회는 차기 대회 일정도 함께 공개했다. 제15회 선교한국 2016 대회는 내년 8월 1일부터 5박6일간 서울 광진구 세종대와 건국

## “한국교회, 종교개혁 전통·유산 이어가길”

###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 신학 해설시리즈 10권 발간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대표회장 이종윤 목사)는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학술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교개혁의 신학과 신앙을 널리 알리기 위해 '종교개혁신학 해설시리즈'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종윤 목사는 "기념사업회가 추

진하는 7대 사업 가운데 종교개혁신학 소책자 출판·보급사업의 하나로 해설시리즈 10권을 제작했다"며 "신앙과 신학을 바로잡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한국교회가 성경적 전통과 유산을 가장 강하게 갖고 있는 종교개혁자들의 신앙과 신학을

전수받았지만 혼란스러운 시대를 맞으면서 그 유산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교개혁신학 해설시리즈'는 '개혁교회란 무엇인가' '오직 성경만으로' '오직 은혜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 '종교개혁과 설교의 개혁' '참된 신앙에 따른 삶'의 개혁' 등 개혁신학의 이론, 목회 현장, 삶에 반영하는 내용까지 총 10개의 주제를 담았다. 집필에는 이 목사, 이항봉(고신대) 김광영(총신대) 유태주(한일장신대) 최갑중(백

석대) 김정훈(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김성봉(대신총회신학교) 최승락(고려신학대학원) 최윤배(장신대) 서창원(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 등 교단을 초월한 신학자들이 참여했다.

이 목사는 "신학자들이 하나님께 서 주신 신학 지식을 한국교회에 기부하는 마음으로 읽고요를 받지 않고 헌신한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기념사업회는 이 해설시리즈를 번역해 해외 성도들에게도 보급할 계획이다.

## 감독회장 ‘2년 전임’ 축소 부결

### 기감 제31회 총회 임법의회 개최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는 28일 경기도 성남 선한목사교회에서 '오늘의 혁신, 내일의 희망'(렘 29:11)을 주제로 제31회 총회 임법의회를 개최했다.

개정안은 임법의회 회원 일부가 현장 발의한 안건이었다. 이들은 현행 '담임목사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조항을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10년 동안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로 고칠 것을 제안했다.

전용재 감독회장은 개회예배에서 "진실함과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거룩한 총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결단을 내리자"고 당부했다.

일부 회원들은 "목회자 자녀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감리교회에 세습이 많은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편법으로 교회를 대물림하는 약속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더 큰 호응을 얻었다. 개정안은 찬성 212표, 반대 189표를 얻어 가결됐다.

감독회장 제도를 각각 2년 전임제나 담임목사 겸직이 가능한 2년 겸임제로 변경하지는 헌법 개정안은 모두 부결됐다. 헌법 개정안은 찬성 214표, 반대 183표를 얻는 데 그쳤다. 2년 전임제 안건도 찬성 247표, 반대 154표를 얻으며 부결됐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가 지난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습된 교회는 총 122개였다. 이들 중 85개 교회는 담임목사직을 직접 물려줬고 37개 교회는 징검다리 세습처럼 법망을 교묘하게 비껴 나간 변칙을 동원했다.

기감은 총회 임법의회 마지막 날 이후 은급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에 대비해 각 교회들이 부담하는 은급 부담금을 인상키로 했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가 지난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습된 교회는 총 122개였다. 이들 중 85개 교회는 담임목사직을 직접 물려줬고 37개 교회는 징검다리 세습처럼 법망을 교묘하게 비껴 나간 변칙을 동원했다.

임법의회는 또 변칙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대물림하는 '징검다리 세습'을 막기 위해 담임목사의 사직 후 10년 동안 자녀나 그 배우자의 청빙을 금지키로 했다. 한국교회 교단 중 처음이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가 지난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습된 교회는 총 122개였다. 이들 중 85개 교회는 담임목사직을 직접 물려줬고 37개 교회는 징검다리 세습처럼 법망을 교묘하게 비껴 나간 변칙을 동원했다.

기감은 29일 경기도 성남 선한목사교회에서 개최한 제31회 총회 임법의회 둘째 날 회무에서 징검다리 세습을 10년 동안 금지하는 잠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가 지난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습된 교회는 총 122개였다. 이들 중 85개 교회는 담임목사직을 직접 물려줬고 37개 교회는 징검다리 세습처럼 법망을 교묘하게 비껴 나간 변칙을 동원했다.

기감은 29일 경기도 성남 선한목사교회에서 개최한 제31회 총회 임법의회 둘째 날 회무에서 징검다리 세습을 10년 동안 금지하는 잠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가 지난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습된 교회는 총 122개였다. 이들 중 85개 교회는 담임목사직을 직접 물려줬고 37개 교회는 징검다리 세습처럼 법망을 교묘하게 비껴 나간 변칙을 동원했다.

기감은 29일 경기도 성남 선한목사교회에서 개최한 제31회 총회 임법의회 둘째 날 회무에서 징검다리 세습을 10년 동안 금지하는 잠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가 지난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습된 교회는 총 122개였다. 이들 중 85개 교회는 담임목사직을 직접 물려줬고 37개 교회는 징검다리 세습처럼 법망을 교묘하게 비껴 나간 변칙을 동원했다.

기감은 29일 경기도 성남 선한목사교회에서 개최한 제31회 총회 임법의회 둘째 날 회무에서 징검다리 세습을 10년 동안 금지하는 잠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가 지난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습된 교회는 총 122개였다. 이들 중 85개 교회는 담임목사직을 직접 물려줬고 37개 교회는 징검다리 세습처럼 법망을 교묘하게 비껴 나간 변칙을 동원했다.

기감은 29일 경기도 성남 선한목사교회에서 개최한 제31회 총회 임법의회 둘째 날 회무에서 징검다리 세습을 10년 동안 금지하는 잠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가 지난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습된 교회는 총 122개였다. 이들 중 85개 교회는 담임목사직을 직접 물려줬고 37개 교회는 징검다리 세습처럼 법망을 교묘하게 비껴 나간 변칙을 동원했다.

## “비기독교인과 차별된 영적 품성개발을”

### 예정합동 총회교육주제 심포지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교육진흥원(원장 노재경 목사)은 26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예정합동 총회본부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어지거는 아름다운 우리 성품'(엡2:22)을 주제로 2016 총회교육주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는 전국에서 목회자와 노회 교육부장, 주일학교 사역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기독교 성품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예장합동 총회교육진흥원(원장 노재경 목사)은 26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예정합동 총회본부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어지거는 아름다운 우리 성품'(엡2:22)을 주제로 2016 총회교육주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는 전국에서 목회자와 노회 교육부장, 주일학교 사역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기독교 성품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제발제에 나선 노재경 총회교육진흥원장은 "지난해 교육부에서 전국 1184개교 4만여명을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들의 자기통제능력 결여가 심각한 수준이었다"며 "인성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적 성품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장합동 총회교육진흥원(원장 노재경 목사)은 26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예정합동 총회본부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어지거는 아름다운 우리 성품'(엡2:22)을 주제로 2016 총회교육주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는 전국에서 목회자와 노회 교육부장, 주일학교 사역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기독교 성품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제발제에 나선 노재경 총회교육진흥원장은 "지난해 교육부에서 전국 1184개교 4만여명을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들의 자기통제능력 결여가 심각한 수준이었다"며 "인성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적 성품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장합동 총회교육진흥원(원장 노재경 목사)은 26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예정합동 총회본부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어지거는 아름다운 우리 성품'(엡2:22)을 주제로 2016 총회교육주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는 전국에서 목회자와 노회 교육부장, 주일학교 사역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기독교 성품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제발제에 나선 노재경 총회교육진흥원장은 "지난해 교육부에서 전국 1184개교 4만여명을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들의 자기통제능력 결여가 심각한 수준이었다"며 "인성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적 성품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장합동 총회교육진흥원(원장 노재경 목사)은 26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예정합동 총회본부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어지거는 아름다운 우리 성품'(엡2:22)을 주제로 2016 총회교육주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는 전국에서 목회자와 노회 교육부장, 주일학교 사역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기독교 성품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 “인권은 동성에 극복으로 성취되는 것 알려야”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 현장 신학 특별강좌’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자연장교육원(원장 정창균 교수)은 26일 동성에 문제를 신학·목회·법률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목회 현장에서 대응방향을 들을 수 있는 특강을 개최했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자연장교육원(원장 정창균 교수)은 26일 동성에 문제를 신학·목회·법률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목회 현장에서 대응방향을 들을 수 있는 특강을 개최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합신대(총장 조병수 목사)에서 진행된 '제6회 목회자들을 위한 현장의 신학 특별강좌'에서 송인규 합신대 은퇴교수는 "동성에는 성경이 분명하게 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창세기 13장 13절, 레위기 18장 22절, 로마서 1장 27절 등을 언급하며 "비록 동성애가 죄악인 것은 분명하지만 동성애자들을 배척하는 것은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자연장교육원(원장 정창균 교수)은 26일 동성에 문제를 신학·목회·법률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목회 현장에서 대응방향을 들을 수 있는 특강을 개최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합신대(총장 조병수 목사)에서 진행된 '제6회 목회자들을 위한 현장의 신학 특별강좌'에서 송인규 합신대 은퇴교수는 "동성에는 성경이 분명하게 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창세기 13장 13절, 레위기 18장 22절, 로마서 1장 27절 등을 언급하며 "비록 동성애가 죄악인 것은 분명하지만 동성애자들을 배척하는 것은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자연장교육원(원장 정창균 교수)은 26일 동성에 문제를 신학·목회·법률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목회 현장에서 대응방향을 들을 수 있는 특강을 개최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합신대(총장 조병수 목사)에서 진행된 '제6회 목회자들을 위한 현장의 신학 특별강좌'에서 송인규 합신대 은퇴교수는 "동성에는 성경이 분명하게 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창세기 13장 13절, 레위기 18장 22절, 로마서 1장 27절 등을 언급하며 "비록 동성애가 죄악인 것은 분명하지만 동성애자들을 배척하는 것은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자연장교육원(원장 정창균 교수)은 26일 동성에 문제를 신학·목회·법률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목회 현장에서 대응방향을 들을 수 있는 특강을 개최했다.



# 선교의 창 (41)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수필가)

## 선교 모라토리엄(Mission Moratorium)

선교 모라토리엄이란 무엇인가? 이는 피 선교지 인의 입에서 "선교사 당신들 도움이 고맙기는 하지만 이것이 현지교회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니 이제 좀 자리를 비켜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말을 들은 선교사나 선교를 하는 교회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 땀과 눈물을 흘리며 생명 바쳐 사역을 했는데 현지로부터 배척받는다 것은 대단히 슬픈 일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서 가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좀 더 주관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현지교회와 문화의 눈높이에서 사역을 성찰해 보

는 선언이다. 모라토리엄은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채무불이행(Default)'이나 채무상환을 거절하는 '지급거절'과는 의미가 다르다. 선교 모라토리엄은 1917년 1차 세계대전 이후 동부아프리카 가나에서 사역한 스위스 바젤선교회로부터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당시 바젤선교회는 현지교회로부터 외국 선교사들의 철수 요구를 받았다. 핵심은 현지교회와 외부자들을 의지해 성장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되었다. 이후 1971년 5월, 동부아프리카 장로교총회 총무였던 케냐인 존 가투(John Gatutu) 목사는 WCC(세계

를 비롯해서 신학교 건물 입구에 걸고 각종 교재 표지로 사용하는 등 교단의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자립'에 맞췄다. 케냐를 중심으로 동아프리카장로교회는 이 사건 이후 교세가 5배 정도 성장한 450만 명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교단의 총회장은 국회가 개원할 때 대통령과 함께 나라간 참석할 정도로 사회적 비중이 커졌다.

특히 동아프리카장로교회의 성장은 타교단의 성장도 견인해 케냐 교회는 걸출한 인물들을 연이어 배출했다. WCC 6대 총무를 지낸 사무엘 코바이 목사가 케냐 감리교회



업 선언이 가져다 준 효과다. 만약 1970년대에 필리핀에서 선교 모라토리엄에 대한 고민이 없었고 UCCP가 온정주의 혹은 일방주의 선교가 가져다주는 선교자원에 연연해 의존할 교단으로 남았다면 결과는 어땠을까?

4. 서구 선교에 대한 랄프 윈터 박사의 지적

그는 12개 항목으로 예리하게 서구선교의 과오를 지적했다. 그 중 선교모라토리엄을 유발하게 된 몇 가지를 요약하면 첫째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실현보다 내세의 구원만을 강조한 것이다. 둘째는 교회가 선교단체와 협력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것이다. 셋째는 현지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곧 '서구화 된 사람'을 의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넷째는 복음보다 물질로 인해 비본질적 사역에 치중했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장기 선교보다 단기 선교를 선호했다는 것이다. 여섯째, 선교의 비즈니스와 비즈니스 선교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일곱째, 선교가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5. 맺음 말

선교는 인간의 문화이식이나 알량한 자선사업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며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가 피선교지 영역에 나타나다로 하는 것이다. 선교의 핵심은 현지인이며 그들이 선교의 꽃이다. 그러므로 선교는 시작부터 철저히 현지인의 눈높이에서 시작하며 그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에 선교는 현지 문화에 대한 바른 성경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과거의 무서운 제국주의적 선교(Imperialism)나 여전히 존재하는 가부장적 선교(Paternalism)는 이제 끝장내야 한다.

일방적인 주는 선교에서 이제는 "그들과 함께, 그들을 통해 전진하는 선교"로 나아가야 한다. 선교사는 자기 킴벌을 세우겠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선교 모라토리엄은 언제든 재발될 수 있다. 선교사는 하나님의 선교에서 불쏘시개처럼 사라져야 한다. 이것이 현지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초석이다.

이메일: jrson007@hanmail.net

## 선교 펴기 코스타리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기록하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어느덧 이곳 코스타리카에 온지도 4년이 되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주셨고, 그리고 저희의 발걸음 가운데 여러 가지 기쁨의 열매들을 보게 하셔서 감사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기도과 후원으로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온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5명의 가족이 세례를 받고 주일과 성경공부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며 날마다 성장해가는 그들의 삶을 통해 큰 보람을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Rio Azul교회는 처음 제가 도착했을 때에는 마치 마굿간을 연상케 하는 열악한 환경과 여러 가지의 문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지금은 안정된 목회자와 헌신된 교사들을 통하여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성전과 2층 교실 및 주방 시설까지 아름답게 지어져, 이제는 많은 어린이들이 주일학교에는 물론이며, 주중에도 교회에서 말씀과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을 받으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러한 사역들을 통하여 Centro Cristiano Internacional이라는 현지인 교회가 도전을 받아, 자원과 인력을 동원하여 함께 돕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좋은



협력의 관계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10월부터 현지인목회자 세미나의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선교 역사에 대한 강의를 부탁 받아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곳 하나님의 성회(Asamblea de Dios) 교단에서 교회마다 선교에 대한 강의를 부탁 하겠다고 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Purral교회에서는 지난 10월 초, 주중 교회 용도를 어린이 보육원과 After School 시설로 변경하고 그를 통하여 아이들과 그 부모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전 교인이 동의를 하였고, 이제 머지않아 Purral교회에서도 어린이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인권을 허락하시고, 기도와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이곳에서도 어린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Purral교회 사역이 롤 모델이 되어 좋은 반응을 얻게 되었기에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되, 단지 사역은 저를 비롯하여 이곳에 계신 한인 선교사 한 분과 한인교회가 공동으로 하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협력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소원해 봅니다.

기도제목

1. 시온교회의 안정화와 다문화 가정 예배를 위하여 기도부탁드립니다.
2. 저와 제 아내가 이곳에서 교육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하루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3.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부탁드립니다.
4. Rio Azul의 Maria Ortiz 자매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이 잘 갖추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5. Purral교회에 Rio Azul과 같은 모델의 Center가 지어질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김도경 선교사

이메일: gabrielkim1004@gmail.com

선교 모라토리엄은 기독교 선교의 부끄러운 단면이다.

제국주의적 하향식 선교는 현지교회를 샅군처럼 종속하게 한다.

교회는 이제 주는 선교에서 함께하는 선교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야야 한다. 근대 서구선교의 공(功)은 인류 공영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빛이 강한 곳에 어두움도 짙듯이 과(過)도 적지 아니했다. 힘을 바탕으로 한 '상등 문화권에서 하등 문화권이란 등식'의 제국주의 선교는 이미 한계성에 도달했다. 그 결과로 현재의 선교역사 가운데 선교유예(Moratorium)가 회자되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서 의식 있는 현지인 지도자들이 그 심중에 기독교 선교를 예리하게 바라보고 있다.

비록 말은 없지만 선교현장에 많은 갈등이 상충하고 있다. 마치 집안에 가스(Gas)가 가득 찬 것처럼. 따라서 우리는 선제적으로 성령님의 조명이래 선교유예가 나오게 된 원인을 분석해보아야 한다. 나아가 무조건 주는 일방적 선교를 제고하고 현지교회가 리더십을 갖고 건강히 세워지는 방향으로 사역을 펼쳐야 한다.

### 1. 선교 모라토리엄의 유래

모라토리엄(Moratorium)이란 라틴어로 '지체하다'란 뜻의 '모라리(Morari)'에서 파생된 말이다. 한 국가가 경제·정치적인 이유로 외국에서 벌려온 차관에 대해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지불유예(支拂猶豫)'를 의미한다. 채무를 반드시 갚겠지만 현 상황에서 갚을 능력이 없어 지급을 일정기간 유예하겠다는

교회협의)와 USNCC(미국교회협의회)에 선교유예(Moratorium on missionaries)를 최소한 5년 동안만 실시해보자고 충격적인 제안을 하였다. 즉, 현지 교회는 선교사와 선교비 그리고 선교단체의 도움을 받지 말고 자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보자는 것이었다. 케냐 교회가 스스로 사역을 해보도록 외부적 도움을 유예하자는 이 제안은 진정한 선교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의미심장한 일이었다.

### 2. 선교 모라토리엄의 결과

1971년 존 가투(John Gatutu) 목사의 문제제기 배경은 서구 선교사들의 지도력과 재정지원이 현지 교회의 자립과 자치를 막고 있다는 데 기인했다. 존 가투의 제안 이후 동아프리카장로교회는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1970년대 초반부터 교세가 감소하기 시작했던 스코틀랜드장로교회와의 대화를 통해 선교지 이양작업을 순조롭게 진행시켰다.

동아프리카장로교회는 스코틀랜드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던 선교지 재산을 자력으로 구입했고, 선교사들은 약속대로 5년 간 케냐를 떠났다. 동아프리카장로교회는 이후 '자립'을 뜻하는 스와힐리어인 'JITEGEMEA'(지테게메아)를 교단의 로고로 정한 뒤 이를 교단 본부

출신으로, '아프리카 종교와 철학'의 저자 존 S. 음비티 박사 같은 세계적인 신학자도 케냐 출신이다. 이처럼 40여년 만에 동아프리카장로교회의 교세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교단의 자생력을 키운 데 근본 이유가 있다.

### 3. 선교 유예(Mission Moratorium)에 대한 필리핀의 사례

필리핀그리스도연합교회(UCCP)도 선교 모라토리엄을 통해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선교적 관계를 재정립한 사례로 유명하다. 선교 모라토리엄에 대한 요구는 존 가투 목사와 같은 해인 1971년 필리핀감리교회 지도자 낙필 감독도 필리핀 기독교교회협의회(NCCP)에서 제기했다.

UCCP는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연구해 동반자선교라는 선교정책 문서를 발표했다. 이 정책문서에 따라 UCCP는 외국의 동역교단이 보내는 재정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산하 교회들이 선교지원비 이름으로 교회 예산의 22%(이중 13%는 노회 운영비로 집행되고, 9%는 총회 사업비로 배정된다)를 모아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또한 교회자립을 위한 7개년 발전계획을 채택하고 총회 전도부와 노회 전도부가 교회개혁을 위해 협력하는 계기도 바로 선교 모라토리

#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	\$100	유럽 .....	\$190
	캐나다 .....	\$110	남미 .....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	\$190	아프리카 .....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 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꼭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어 _____
전화번호/Fax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스킴가)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 DYNAMICS 다이내믹스 MARTIAL ADRENALINE ZONE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www.dynamicsworld.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T. 516.354.8484 F. 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 힐링캠프 기도원



이선자 목사  
심과 회복이 있는 기도 동산.  
지친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 주세요

Cell, (714)220-7660  
3026 W. Ball Rd. Anaheim, CA 92804  
jesussunja@gmail.com





### 캄보디아

선교의 동역자 여러분께.

은총 주위가 초록색으로 뒤덮여 캄보디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는 10월의 중순입니다. 올해 비 오는 시기가 많이 늦어져 9월 달에 비다운 비가 와서 늦은 모내기를 하느라고 마을 사람들은 눈코 뜰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러나 비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와서 8년 만에 마을에 홍수가 나서 논이 잠기기도 했으나 큰 피해 없이 물이 빠졌습니다.

3개월의 긴 방학을 마치고 새 학년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교 시작 전 청소하러 학교에 가고 저 혼자 센터에 남아 오랜 만에 여유로운 고요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6월 12일엔 Westminster 신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학부의 찐타(Chantha)와 워티(Vuthy)가 졸업을 하고 신대원의 Sarath이 M.A. 과정을 마쳤습니다.

Phalla는 영어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학교의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18일엔 Chantha와 Vann(올해 수의학과를 졸업)의 약혼식이 있었습니다. 센터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커플이고, 마을에서 처음으로 캄보디아 기독교식으로 약혼식을 올리는 자리에 가족들과 여러 선교사님들과 많은 학생들이 참석하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10월 9일엔 그동안 센터에서 인턴으로 봉사했던 Nathaniel Choung 형제가 6개월간의 기간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형제의 수고로 센터의 학생

들이 영어를 듣고 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어와 키보드를 가르치고 센터의 여러 행사에 참여하면서 아프지 않고 시골 생활에 잘 견디어준 것이 감사입니다. 앞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 이 형제의 앞길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New Life Mission Church, Bethel church, Miju Peace church, Joshua Medical center, 박영채 목사님 내외분께서 올해 센터를 방문해주셨고 많은 사랑을 흘리며 수고하며 이 땅의 사람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센터에 상하수도 시설이 완성되었습니다. 북가주 뉴라이프 선교교회의 이일송 집사님께서 “국경없는 과학자회”를 통해 깨끗한 물을 마시고 샤워까지 하며, 하수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까지 해주셨습니다. 특히 단기팀들이 새로운 물 시스템으로 훨씬 수월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음이 감사합니다. 빛물 받는 시멘트 합리들을 치우고 나서 비가 올 때 그냥 버려지는 빗물들이 아까워서 저와 학생들은 지금도 열심히 빗물을 받고 퍼내고 있습니다. 부엌이 붓고 새로 하고 싱크대도 놓고, 집 아래 공간을 넓혀서 더 많은 영어반이 지붕 아래로 들어오게 되어 비가 와도 걱정 없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도와 주신 이일송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개미산 마을은 소펠(Sophal)과 Vuthy(워티) 학생이 잘 맡아서 사역하고 있고 단기선교팀이 매번 방문하여 격려해 주었습니다.

수의학과를 졸업한 Vann(완) 학생이 마을로 돌아와서 닭을 키우고 싶어 하여 예전에 돼지던 산 밑의 땅에 닭우리를 짓고 센터에 있던 닭들과 소를 모두 옮겼습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수익이 나고 센터 졸업 학생들의 대학 학

자금, 센터 경비까지 낼 수 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방법의 축산을 가르치고 알자리까지 제공할 수 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동안 센터학생들의 훈련방법으로 닭과 소를 길러왔는데, 이제 모두 산으로 보내고 어미닭 4마리와 병아리들, 오리들만 남았습니다. 학생들에게 공부할 시간을 더 주고자 내린 결정입니다. 센터 학생들은 여기보다 더 시골에서 온 학생들이라 기초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방학 2개월동안 매일 아침엔 Phalla(팔라)가 영어를 가르치고 오후엔 과외선생을 모셔 수학을 가르치고 저녁엔 인턴이 영어를 가르치며 책을 읽고 독후감쓰게 하고 크마에 성경 읽히며 많이 공부시켰는데, 이제 9학년에 올라가는 7명의 학생들이 기초를 튼튼히 다져서 잘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올해 우리 센터엔 12학년 졸업생이 없는 대신 방과후 영어학교

에서 공부하던 12학년 9명중 8명이 12학년 졸업 시험에 합격하고 그중에 4명은 아주 좋은 성적을 받아서 프놈펜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 때문에 고등학교

후지를 줌과 치우는 일은 아무도 하지 않기에 이 자체로도 저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 특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들 이야기로 편지가 꼭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아픈 기간이 길어지기 시작할을 실감합니다. 예전엔 하루 이틀이면 자리 털고 일어났는데, 이제 일 주일이 걸려야 몸이 회복됩니다. 아플 때 마음도 약해지는데 이제 떠날 때가 되었는데도 생각해보게 되고... 사역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 지도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큰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업을 갖게 되는 시점에서 센터 사역이 또 다른 단

교로 도약하게 되는 시점일 수도 있는데,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줄" 믿고 사람 키우는 일에 전념하려 합니다.

마을을 다녀가신 손님들이 한결 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학생들이 너무 착하고 예의바르고 열심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오새 이만한 아이들 없다고 많이 칭찬해 주시는데, 정작 저는 아이들을 향한 칭찬이 많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아니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칭찬 사춘기를 지나는 학생들을 칭찬과 관용으로 잘 이끌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휴지를 줌과 치우는 일은 아무도 하지 않기에 이 자체로도 저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 특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들 이야기로 편지가 꼭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아픈 기간이 길어지기 시작할을 실감합니다. 예전엔 하루 이틀이면 자리 털고 일어났는데, 이제 일 주일이 걸려야 몸이 회복됩니다. 아플 때 마음도 약해지는데 이제 떠날 때가 되었는데도 생각해보게 되고... 사역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 지도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큰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업을 갖게 되는 시점에서 센터 사역이 또 다른 단

교로 도약하게 되는 시점일 수도 있는데,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줄" 믿고 사람 키우는 일에 전념하려 합니다.

마을을 다녀가신 손님들이 한결 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학생들이 너무 착하고 예의바르고 열심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오새 이만한 아이들 없다고 많이 칭찬해 주시는데, 정작 저는 아이들을 향한 칭찬이 많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아니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칭찬 사춘기를 지나는 학생들을 칭찬과 관용으로 잘 이끌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향을 찾고 특별한 불교 의식에 참여합니다. 지난 8년 동안 한 번도 참가해보지 않았던 이 행사를 위해 파고다(짚)를 문화체험차 단기팀과 함께 새벽 4시에 찾았습니다. 절당은 몇백 명의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센터로 돌아와 새벽예배 때 단기팀을 인도하셨던 미주평안교회 EM 목사님이 히브리서 12장 1절의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노라"로 말씀을 전하시며, 우리 센터는 허다한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가운데 외로이 떠있는 섬 같은 존재 같으나 예수님과 함께 경주하니 외롭지 않다고 하시며 학생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전엔 마을에서의 크리스천으로서의 존재감이 이렇게 작은지 심각하게 느껴보지 못했으나 불당에서 예식을 올리는 마을 사람들의 무리를 보고나서야 이곳에 저를 보내신 이유를 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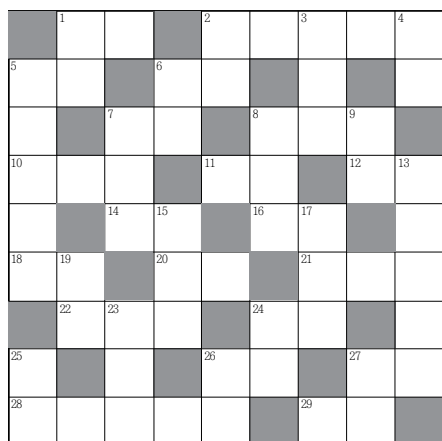
았습니다. 바로 50여명의 예배드리는 소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 마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과 준비하심에 놀라고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선교지에 있다는 실감이 잘 나지 않았으나 올해 여름을 지나며 더 체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 필요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더 합니다. 한분 한분께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맑은 가을날 사랑과 감사로  
조에스터 선교사 올림.  
이메일: esther.m.cho@gmail.com

### 십자말 • Cross Word (104)

#### 김기호 장로(본지 교문)



#### <가로 푸는 열쇠>

1. 기상의 급변으로 오는 싸라기. 눈보다 크고 따뜻한 덩이 눈(출9:18).
2. ○○○○○이 빛나는 아침...(찬55:5).
5. 보통과 다른 형상(겔43:3).
6. 베냐민 부족에 있어서의 레위사람 성읍(수21:18).
7. 소리를 내어 슬피 우는 울음(삼하11:26).
8. 품시 많음(눅14:25).
10. 온 세상에(욥37:12).
11. 팔이 몸에 붙은 자리와 목 사이 뒷바닥(대상15:15).
12. 이야기(삼상9:25).
14. 군대에서 필요로 하는 기구(대상12:33).
16. 남몰래 알고 알리지 않는 일(롬11:25).
18. 자기를 가르쳐 이끌어주는 사람(전12:11).
20. 두 사람 이상이 어떤 일을 꾀함(사9:23).
21. 집에서 기르는 짐승 종류(삼사).
22. 건축물이 다 된 것을 축하하는 의식(신20:5).
24. 더하고 덜함이 없이 고르게(골4:6).
26. 사람의 목숨을 해침(에8:7).
27. 벗. 친구(단2:17).
28.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이...(계21:2).
29. 눈 앞(렘12:4).

#### <세로 푸는 열쇠>

1. 형태가 없는 신을 형상으로 나타낸 것(사2:18).
2.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가나안인이다(마10:4).
3. 사람이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를 행함(롬8:30).
4. 원하게 너름(시118:5).
5. 단의 고을(수19:41).
6. 축적이나 기타 잡것을 모두 골라낸 곡식(마3:12).
7. 초상에 관한 모든 일을 주선하거나 장례 시에 묘지까지 상주와 동행하는 사람들(창50:13).
8. 기(氣)가 허하여 착각으로 나타나는 환영(幻影)(고전3:20참조).
9. 심심풀이로 하는 이야기(잠11:13).
13. 나무의 일종(느8:15).
15. 건축을 시작할 때 올리는 의식(삼사).
17. 소뿔(겔46:7).
19. 칭하는 바를 들어줌(문1:14).
23. 성문 위에 지은 누각(삼하18:24).
24. 괴로운 인간 세상(수10:11).
25. 해오라기와 비슷하나 훨씬 큰 새(신14:18).
26. 시적 명칭으로 예루살렘을 지칭함이라 한다(시76:2).
27. 구리로 만든 돈, 페니(삼사).

#### 십자말 정답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b>갈보리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b>덴버에덴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세환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Tel: (303) 364-1621 389 Quentin St., Aurora, CO 80011 www.onychurch.com	<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세례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891, 267-471-7777 Fax: (610)222-08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b>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해: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www.919s.com	<b>벤델교회</b>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부예배(영):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6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유치, 청년노부: 오전 10:00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ingham, MA 01944	<b>샬롯장로교회</b>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Tel: (704)529-0800 / 0998(팩스겸용)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b>새시온침례교회</b>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Tel: (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	<b>시애틀평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89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opscs.org	<b>안디옥교회</b> 담임목사: 강중수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nychurch.com	<b>알칸사 제자들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919s.com	<b>앵커리지델린문교회</b> 담임목사: 유제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b>엘파소델린문교회</b>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Tel: 교회: (915)755-1490, 사택: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b>영생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b>킬린온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aletre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b>주예수교회</b>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www.i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35	<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3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후 1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8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kcc.org	<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	<b>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Tel: (80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2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97)

##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Back to Basics) (21)



정신애 박사  
(사카고 트리니티크리스찬칼리지 교수)

개인적 경건과 영적 성숙을 위한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여 할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1)개인적 경건 및 영적 성숙이란 분디 감성과 지성이 균형을 이루어가고 또한 실질적인 실천들이 함께 개발되어져 가는 과정이며 또한 그리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 (2)이는 개인적 차원만을 가리키고 개인적인 차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공동체적 차원에 속한 것이며 또한 이 이야기들이 첫 번째 측면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으며, 오늘은 그 두 번째 측면 즉 “개인적 경건 및 영적 성숙이란 개인적 차원만을 가리키고 개인적인 차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자체가 바로 “개인적 차원”에 방점이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작 최근의 미국의 복음주의적/복음적 신학과 신앙을 가진 많은 교회들은 지금까지 개인적 경건과 영성 형성을 개인적 차원으로만 편협하게 이해해 온 것에 대한 반성의 소리들을 높이고 있으며, 자신들이 받 받고 사는 공동체 사회를 위한 책임의 중요성에 대한 답론들이 활발히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탓에 우리 한인 교회들에게, 특별히 그 경건 및 영성을 위한 교육에 있어서, 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 받고 부딪히며 관계를 맺는 이 사회와 문화에 대하여 어떠한 의식을 세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중심을 잡아 세상을 대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우리 지체들과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여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못하고 되었으며 현재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한인교회들은 사회에 만연하는 인종차별 등의 사회적 불의에 대해 어떠한 목소리도 명확하게 내지 않은 채 지내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소극적으로 때로는 수동적으로 못 본척은 감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적극적으로

### “개인적 경건 혹은 영적 성숙”은 사회 문화적 공동체적 차원 포함 사회의식 및 공동체적의식을 함양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교육이야

오늘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나누고 싶은 것은 “개인적 경건 혹은 영적 성숙”은 개인적 차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공동체적 차원을 중요하게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personal)” 경건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인상 탓인지, 한인교회교육을 위한 신학적 기초에 있어서 그 마지막 조각을 이루는 “개인적 경건 및 영성 형성”이라는 부분은 늘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해되어온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 신앙훈련의 방법들이 개별적이라는 점과 개개인 한 인격 한 인격이 독립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져나가는 것이 경건의 바탕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지, 결코 그 사고 및 실천이 개인적 차원에 집중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는 책임 있게 성숙해가는 개별적 신앙인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 모든 관계에서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건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을, 또한 그래야 함을 뜻합니다.

위기가 할 것이며, 우리 사회와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지를 해석하고 결정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의 한인교회의 교육적 면면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받 받고 사는 이 사회와 공동체에 대해 올바른 관심을 두고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에 대해 가르치고 훈련하는 사명을 적절 감당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위 사회의식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교육이 매우 부족했었으며 또한 이에 교회 전체가 이 사회와 공동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피력하는 일도 드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의 부조리와 부정의에 대해 무심하였고 어떠한 부정의와 부조리에 대해 바로 잡고 변화를 일구어야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땅히 행해야 할 바임을 잊은 채 지내온 듯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회의식을 함양하고 사회의 부조리 및 부정의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일 등의 사회적 공동체적 차원은 개인적 경건과 영성과는 관계없는 일처럼 여겨지고, 경건과 영성은 개인적 차원에 가두어져 버렸으며, 경건과 영성을 교육하는 일에서도 개인적 차원만을 강조했었습니다.

로 능동적으로 그저 참는 것이 미덕인 양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공동체의 죄(communal sin)이며, 모두 함께 회개해야 할 부분이며, 우리 한인 교회 뿐 아니라 미국 교회도 함께 회개하여야 하는 부분이며,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정부도 함께 회개할 수 있도록 먼저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경건과 영성은 개인의 삶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며, 모든 관계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의에 바탕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바탕하여, 이 사회와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세워가는 것이 바로 완성적이고 균형 잡힌 경건과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 사회와 공동체의 모습을 그리고 그 문화의 면면들을 그냥 지나치는 것은 진정한 기독교적 경건 및 영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의 신학적 기초로 삼아야 할 그 경건과 영성은 개인적 차원에 국한된 반복짜리 경건 및 영성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과 사회, 문화적 차원을 모두 포괄하는 온전한 하나님을 이루는 경건 및 영성이어야 하겠습니다. (16면으로 계속)

##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 월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요일1:1-4)찬512장

요한은 신령한 복음, 요한복음의 계시를 근거로 요한서신을 통해서 교회에게 확신을 주려합니다. 그 시작부터 그리스도는 영생의 말씀이심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첫째, 그는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계신 로고스는 성자를 가리키며 그 자신이 창조자요, 섭리자요 그리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만이 깨어진 아버지와 연합 곧 구원을 이루실 중보자이신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

도만인이 그 로고스와의 살 깊은 연합을 가진 교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보고 듣고 만진 바된 체험적인 사리를 주장합니다. 셋째, 이것은 기쁨이 충만한 사림입니다. 참 주되신 하나님과 통하는 삶이 기쁨 충만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영원 속에 살게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경험을 맛보는 신자가 됩니다.

### 화 예수의 피의 역할(요일1:5-8)찬184장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왕성한 교제로 설명합니다. 첫째,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리가 계속되는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영생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기에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인 것입니다. 둘째, 그 사림은 빛의 생활로 나아가게 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빛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 하기 때문에 교제가 있다고 하며 어두운 생활

은 자신을 속이는 생활이라고 가르칩니다. 셋째, 예수의 피를 중심함으로 우리는 진리의 교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의 공로를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빛 아래서 발견되는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피의 진리를 믿음으로만 변화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는 찬송은 진실 중 진실입니다. 그 피의 효능을 누립니다.

### 수 회개의 방법(요일1:9-11)찬338장

구원의 확신은 회개를 잘하는 것과 관계됨을 사도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첫째, 죄 자백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회개는 일생에 한번 일어나지만 회개는 무덤에 갈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자백은 바로 회개를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거기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슬피하며 끊는 용단을 가지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둘째, 회개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완성된 죄사함의 진리는 성령을 통해 경험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백했기에 그제서야 용서하기보다 이미 용서됐기에 믿음의 행위를 통해 그 약속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용서함의 경험은 하나님의 불변한 사랑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셋째, 죄를 끊게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빛을 볼 때만 우리는 빛으로 변화됩니다. 그 자리에 바로 섭시다.

### 목 화목제물이신 주님(요일2:1-2) 찬507장

사도가 본 서신을 쓰는 목적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을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자리로 이끕니다. 첫째, 여전히 예수만이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하나님과의 살 깊은 관계가 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을 담당하시고 빛이신 하나님과의 살 깊은 연합을 위해 영원히 일하시는 보혜사가 되십니다. 대언

자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둘째, 그의 의로 우리는 용서를 받고 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셋째, 그런 일은 그의 십자가 공로에서 나온 것입니다. 유일한 화목제물이 되시는 그의 죽음이 우리를 대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안에 머물러 그의 삶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 금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요일2:3-6)찬40장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첫째, 그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기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자연히 순종의 생활 곧, 그의 계명을 지키도록 돼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자는 거기에 끌리도록 되고 순종할 의무를 가집니다. 둘째, 그것은 진리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계명은 다른 말로 진리입니다. 진리이

신 그리스도의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진리이시고 모든 일의 진리를 나타내시는 원천이십니다. 셋째, 역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은 바울처럼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생활표어로 삼고 살았습니다(엡4:15-16). 그 생활을 힘씁시다.

### 토 형제 사랑이 보인 증거(요일2:7-11)찬278장

또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탁월한 삶은 이 형제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첫째, 이것은 새 계명 곧 새 언약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옛 계명과 빛에서 새 계명이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도 성취된 구속 위에 세워진 새 언약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보인대로(렘31:30-31) 제한된 효능에서 벗어나 절대적 효력을 가진 새 언약만이 하

님의 참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바로 이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구약의 율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신약의 완성된 복음에 근거를 두게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형제 사랑을 새 언약 핵심의 중요한 기준으로 다루었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b>금란교회</b>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동양구 망우동 340-1(131-231)	<b>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7:00 주일야예배: 오후 9:00 Tel: (031)877-3389, Fax: (031)877-8382 (우)110-831 남양주 남양읍 남양로 1670-1	<b>로마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676(교우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b>새에덴교회</b>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b>성문교회</b>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3:30 새벽기도: 오전 5:00 새벽기도: 오전 6:3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b>성실교회</b>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02)12-958-995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용두동 520 (142-808)	<b>성일교회</b>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토요일은 없습니다) Tel: (0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713-26호
<b>수정교회</b>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Tel: (82)32-588-0191, Fax: (82)32-58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1(404-270)	<b>승동교회</b>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Tel: (82)732-2341-3, 사택: (02)389-2235 (110-290) 서울시 용문구 인사동 137번지	<b>시온소교회</b>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419-2	<b>신길교회</b> 담임목사: 이신웅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842-1968, 사택: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b>신천교회</b>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강북구 용두동 172, 291(감실동) www.shincheon.org	<b>신촌교회</b>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82)2-786-6579, 사택: (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b>안암 제일교회</b>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5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매문구 제기 1동 146-7
<b>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진해구 양곡동 415 www.yangok.org	<b>왕성교회</b>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b>장위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b>주안교회</b>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104(403-838)	<b>창대교회</b>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북구 성북3동 448-23	<b>청주주님의교회</b>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b>충신교회</b>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





##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교회 (8)



**엄예선 박사**  
(플러신학대학원 가정상담 및 한국가족학 교수)

(5) 낙관적인 삶의 자세와 긍정적인 감정을 습관적으로 개발할 것.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낙관적인 관점과 감사와 남에 대한 공감과 측은지심, 유머와 웃음이다(Preston, 2006).  
미국의 유펜(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200여 나라들에 속한 백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늘 일어난 일들 중에서 좋았던 일들, 혹은 감사한 일들 세 가지를 매일 매일 기록하라는 과제를 매일 한 주일간 시행하게 한 결과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덜 우울해지는 긍정적인 결과가 일어났다고 한다(Gentry, 1999).

### 올바른 리더십을 위해 건강한 가정, 자기관리, 지원집단은 필수조건 완벽한 목회자는 없으나 8가지 점들을 갖추기 위해 매일 노력해야

(6) 분노를 다루는 건설적인 방법을 배울 것.  
분노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고, 때로는 영적으로 건강한 감정이다. 분노는 무조건 억압하거나 무조건 폭발해서는 안된다. 분노가 심하게 일어날 때는 가능하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분노 폭발의 결과를 미리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 동시에 분노의 감정을 일으킨 자신의 생각이 옳은 것이었나? 과연 그 정도의 강한 분노를 느끼기 정당화 되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김희보의(2012) 지적과 같이 목회자는 자신의 유익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분노해서는 안 되나 교회나 사회를 위한 공의로운 분노를 표현할 수는 있다.

(7)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취미생활을 할 것.  
(8) 일의 경계선을 두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것.  
교회는 거의 항상 목회자가 줄 수 있는 그 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고 그러한 요구에 응하다 보면 목회자는 탈진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일의 바운더리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필요하면 거절도 하여 일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 때로는 목회자 자신은 돌봄의 목회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나 실제로는 거절을 못하여 교인

들에게 단순히 끌려 다니는 목회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 VIII. 지지집단

##### 1. 지지집단의 중요성

소외된 상태에서는 누구도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없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목회가 힘들어질수록 스스로를 남들로부터 소외 시킴으로써 중요한 인간관계를 잃어간다는 점이다. 목회자들은 목회가 힘들 때일수록 무엇보다도 지지집단이 필요하다(Lee & Fredrickson, 2012). 여기서 말하는 지지집단이란 서로의 치유와 성장을 위하여 구성된 4-8명의 소집단으로서 기밀 보장이 철저히 되는 모임을 의미한다.  
Labberton 총장은 지난 30년간 지지집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다(Labberton, 2014).

##### 지지집단이 중요한 이유

1) 지지집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에 관한 올바른 분별력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Labberton, 2014).

2) 제자로서의 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한 가지 약점 즉 blind spot을 가지고 있는데 목회자들도 바로 이런 blind spot 때문에 목회현장에서 윤리적인 과오를 범할 수 있으므로 지지집단이 필요하다. 즉 누구나 평상시에는 윤리적인 삶을 살다가도 자신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blind spot이 힘을 발휘하여 윤리적 판단력을 상실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럴

때다.  
(5) 목회자는 뒷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보고하고 평가받는 구조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자신이 목회를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목회자로서의 자질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를 점검받을 기회가 없다. 이러한 기회를 만들고 나아가서 건전한 목회 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목회자의 목회활동을 모니터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기구적 장치(이문장, 2012)가 필요한데, 현재 노회나 교단이 이러한 역할을 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차선책으로 지지집단과 멘토링이 이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6) 목회자로서의 소명의식이 약해질 때 지지집단에서 힘을 부여 받을 수 있다. 목회자의 독특성 때문에 오직 목회자만이 소명의식이 약화된 다른 목회자를 도울 수 있다.

##### 2. 어떻게 지지집단을 만들 것인가?

- 1)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통하고 생각의 수준이 비슷하고(이성희, 2012) 인격적으로 신뢰할 만한 성숙한 동역자들을 잘 선별해야 한다.
- 2) 일주일이나 2주마다 혹은 한 달마다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한다.
- 3) 철저한 기밀보장의 원칙을 세운다.
- 4) 때로는 상대방이 피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다가야 한다.
- 5) 사랑과 용납의 분위기 속에서 진리를 제시해야 한다. 남에게 진리를 올바르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보호막을 걷어치우고 필요하면 사랑으로 상대방과 정면대결도 할 수 있어야 한다(Crabb & Allender, 1984).

지금까지 우리는 건강한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8가지 점들을 살펴보았는데 제자로서의 삶과 소

때 지지집단의 도움이 필요하다.  
Daniel과 Copenhaver(2009:40)는 “동료 목회자 친구가 없는 목사는 그들을 제자리로 이끌어올 수 있는 아무도 없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어떤 목회자가 다른 목회자들의 선례들에 따라서 자신의 부교역자에게 영주권을 해결해주는 대신 무보수로 3년을 일할 것을 요구하고 가짜 서류를 준비하던 중에 동료들로부터 정면대결적인 충고를 받고 멈춘 적이 있었다. 한인 목회자들이 진정한 지지집단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목회자들의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들이 많이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3)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능력 이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배우는 데는 다른 제자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Labberton, 2014: 77).

(4) 목회의 고통을 올바르게 감당하기 위하여 지지집단이 필요하다.  
목회 현장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기 마련인데 이 고통을 혼자서 감당함은 정서적 영적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시다. 이 질병에서부터 자유로우려면 정말 신뢰하는 몇몇 친구들과 목회의 고통들을 나누어야 한다(Gentry, 1999). Lee & Fredrickson(2013: 156)는 “동료로부터의 지원은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명줄과 같다”고 말한

명목 목자의 사랑과 신학적 성숙성과 올바른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과 자기관리와 지원집단은 필수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한인교회의 위기는 위의 8가지 영역의 결핍에서 온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위의 8가지 영역은 목회자나 사모에게만 필요한 점들이 아니고 평신도 지도자들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사항들이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마치 위의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건강한 목회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부담감을 느끼셨을 지도 모르겠으나 어디에도 완벽한 목회자는 없다. 단지 목회자들은 위의 여덟 가지 점들을 매일 매일 더 갖추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각 영역에 대한 자가진단 점수(10은 가장 강한 점수, 1은 가장 약한 점수)
- 제자로서의 삶 (1 2 3 4 5 6 7 8 9 10)
  - 소명의식 (1 2 3 4 5 6 7 8 9 10)
  - 목자의 사랑 (1 2 3 4 5 6 7 8 9 10)
  - 신학적 성숙성 (1 2 3 4 5 6 7 8 9 10)
  - 리더십 (1 2 3 4 5 6 7 8 9 10)
  - 건강한 가정 (1 2 3 4 5 6 7 8 9 10)
  - 자기관리 (1 2 3 4 5 6 7 8 9 10)
  - 지지집단 (1 2 3 4 5 6 7 8 9 10)
- 이메일: yeasunkim@gmail.com (끝)

## 투고 시

### 양곤의 가을씨



임지석 목사 | 나성세계로교회

아침을 기다리기 힘든 듯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며  
또 다른 하루가 열리고 있다

여름을 보내기가 지겨웠는지  
상채기 난 기억을 삼키면서  
가슴 벅차게 울어대고 있다

가을이 그다지도 그리웠을까  
세월의 아픔을 다 토해내듯  
한 숨에 종종걸음 달려왔구나

낮 설은 목소리를 높여서  
숨겨둔 양곤의 소식을 전한다  
나그네 길 이방인을 적시며  
촉촉히 내 안으로 스며든다

주후 2015년 10월  
양곤에 있는 미얀마장로교단 숙소에서

(15면에서 계속)

니버라는 신학자는 (H.R. Niebuhr) 이 사회에 존재할 만한 “그리스도와 문화” 간의 관계 양상들을 다섯 가지로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Christ against culture; Christ of culture; Christ above culture; Christ and culture in paradox; Christ the transformer of culture). 그 중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하나는 “그리스도는 문화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Christ transforms culture; Christ the transformer of culture). 이는 우리의 문화는 우리 인간 타락으로 인한 죄의 상태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개개인들이 구원받아야 함과 같이 이 문화와 사회 역시 구원받아야 새롭게 되어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나서서 실현되도록 일해야 하는 바이며, 그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들을 일구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교회가 그리고 모든 교회가 교육해야 하는 경건과 영성은 바로 이와 같은 경건과 영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가 사회와 문화를 변화시키며 회개시키며 선도하는 자임을 확실히 선포하는 그러한 경건과 영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사역자들은 이를 명심하고 점차 그 교육의 지경을 넓혀서, 이 사회를 올바른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회개시킬 수 있는, 그리하여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회복하고 이를 확장시키는 데 앞장서는 그러한 경건과 영성을 가진 성숙한 신앙인들을 길러 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이메일: sinaichung@yahoo.com (계속)

히브리어 · 헬라이어

# 원문 번역 성경 (신약)

번역 · 주석 고영민  
(前 백석문화대 총장)

한국 선교  
130주년  
기념

신약 신간

구약 출간예정

고영민 번역 주석 | 박종구(울진목회) 기획 2,106면  
이행규(금란출판사) 발행 값 59,000원

히브리어·헬라이어 성경 원문을 알기 쉽고 정확하게 번역,  
전통적인 해석 원리에 의해 성경적으로 주석한 하나님의 말씀

한국 선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말로 옮겨 놓은 聖經 翻譯의 決定版!

새 시대, 현대 신앙인을 위해 누구든지 쉽게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체계적인 기획 하에 출간된 劃期的 力作!

한국교회의 신앙과 신학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나갈 성경 주석의 源泉의 寶庫!

- 1. 전통적, 성경적 해석 원리에 의한 주석
- 2. 성경 해석의 기본 체계를 삼위일체식으로 강해
- 3. 원문을 축자적으로 정확하게 번역, 수용 언어로 알기 쉽게 전달
- 4. 신학의 학문성과 주석의 창조성을 최대한으로 높임

- 5.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성경적으로 평가, 결론 내림
- 6. 구약사의 맥을 따라 원어와 문장 등을 명확하게 설명
- 7. 성경 시대의 배경들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인용
- 8. 성경의 기본 자료인 고대 사본들을 세밀하게 비교, 대조

- 9. 성경 지리와 고고학, 문화, 풍습 등을 현장 답사 경험을 통해 생생하게 묘사
- 10. 원어와 동의어, 반대어, 동음이의어를 상세히 기술
- 11. 성경 본문을 성경연구와 설교준비를 위해 내용별로 분해
- 12. 43개 번역본들을 통해 성경의 다양한 번역 가능성을 제시

목회자, 신학생, 성경연구자! 평신도 필독서!

www.qumran.co.kr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6 Tel. 02-747-1004 금란출판사